



[해설] 1514조 가계빚 추가이자 2.5조 411만 채무자 '시한폭탄' 03



코스피	2131.93 (+35.07)	코스닥	709.46 (+13.70)
금리 (미국 3년)	1.92 (+0.03)	환율 (원/달러)	1110.70 (-10.50)(3일)

삼성, 오늘 인사... 세대교체 폭 관심

JY 경영복귀 후 첫 단행 김기남 등 유임 확실시 실적부진 IM, 10% 축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성의 전통적인 인사 원칙에 따라 사업부별 공과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을 맞아 미래먹거리 발굴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조직 안정'에 초점

3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그룹 내실을 다져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표를 맡은 뒤에는 대체로 3~4년간은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김기남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문장은 2014년

이후 5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DS 부문을 이끌면서 역대 최대 실적 등 성과를 쌓았다.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도 2014년 첫 취임 후 여전히 신임을 유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해왔다.

고동만 삼성전자 IM 부문장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갤럭시

시 노트7 폭발 사건을 발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한데다가, 후속작 흥행에도 연이어 성공하면서 능력 발휘에 성공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었던 윤부근·신종균 부회장은 등기 이사로 활약 중이다. 권오현 회장도 종합기술원을 이끌고 있다.

최근 선행된 금융계열사 인사에서도 안정 기조는 뚜렷했다. 모든 CEO가 유임됐고, 직무대행이었던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는 공식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 세대교체 이어갈까

삼성이 이번 인사에서 세대교체를 피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이재용 체제 이후 삼성은 젊음을 추구하고 평균 나이를 꾸준히 줄여온 바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야당 불참' 본회의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

소비자는 봉?

보험료 오르고 카드혜택 줄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카드사의 순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카드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축소 등이 예상된다. 또 정부가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았지만

손해율이 상반기 기준 100%를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5~9% 가량 실손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서민 부담이 그 만큼 커지는 셈이다.

'손해율 120%' 실손보험료 7%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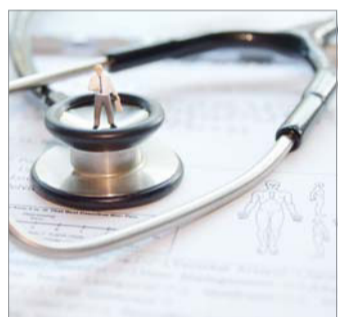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 오른다. 매달 약 1000원, 1년에 1만원 가량 더 내는 셈이다.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한다. 보험료 인상은 통상 신상품이 출시되는 매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약 7%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동폭은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씩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매달 1만2651원의 실손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손해보험은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 성격을



/유도이미지

생보 8.7%·손보 5.9% ↑ 내년 매달 평균 1000원 ↑ 중복 가입 서민 부담 가중

가진 보험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96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37만건(1.1%) 늘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6년과 2017년 실손보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으나 올해에는 동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116.6%,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24.0%였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올 상반기 '문재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으로 실제 손해율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1일, 지난해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12% 인상하고 그 이후 판매한 새로운 실손보험료는 8.6%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개발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주 기자 hj89@

카드고객 혜택줄여 소상공인 달래기

소상공인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결국 소비자들의 희생이 담보가 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면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 수수료를 낮출 때마다 비용효율화 노력을 해왔음을 감안하면 추가 비용 절감은 '마른 수건 짜기'다. 결국 비용을 줄일 곳은 소비자 혜택이다. 각종 부가서비스는 줄고, 연회비는 오를 수밖에 없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주중으로 카드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당초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놓을 때는 현재 소비자가 받고 있는 혜택이 과도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의 혜택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당국, 카드사 마케팅 과도 관행 개선해 수수료 인하 부가서비스 ↓, 연회비 ↑ 소비자 부담 등 논란 키워

신용카드 사용으로 결제 편의성, 평균 1개월간의 신용 이용 및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 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포인트,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는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상당 부분은 그동안 법안위원회에 집중돼 있었다"며 "카드사는 법안위원회에 연회비도 받지 않으면서 해외 여행 서비스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담은 가맹점에 무차별적

으로 지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반회원의 카드사용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역시 "카드수수료 개편이 산정된 인하여력은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감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연일 진화에 진땀을 빼고 있다. 카드 이용자 개개인의 수요와 관계없이 부가서비스의 효율 여부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미 포인트, 할인서비스 등은 소비자가 빈번하게 이용하는 모든 혜택으로,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 및 레스토랑 무료이용 등은 비효율적인 부가서비스로 정해지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일반 소비자 빈번 혜택이 아니라 과도한 부가서비스 줄이겠다는 '합리적' 수준이 어느 선에서 결정되든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금호 등 8개 석유화학 업계, 14.5조 ‘통 큰 투자’

GS칼텍스, 2.7조 투자·500명 고용
LG화학, 2.6억 투자·300명 고용 등
2023년까지 일자리 1685개 창출

석유화학업계가 2023년까지 1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685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업계는 3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화학업계 대표들과 만난 투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날 LG화학과 전남·여수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LG화학, 현대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GS칼텍스, 여천NCC,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3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화치공장 연수원에서 열린 석유화학업계의 투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케미칼 등 8개 석유화학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투자협약식에서 LG화학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의 설비투

자와 지역인재 포함 300여명의 고용창출, 지역 생산품 구매 등을 약속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LG화학이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GS칼텍스는 여수지역에 2조7000억 규모 설비투자과 500명 고용창출을, 현대케미칼은 대산지역에 2조7000억원 규모 설비투자과 300명 고용창출을, S-Oil은 울산지역에 5조원 규모 설비투자과 400명 고용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업계는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해 용지 부족 문제 해소,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또한 24시간 가동되는 현장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와 환경규제 관련 질소산화물(NOx)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성 장관은 “석유화학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애로와 건의사항은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해결하겠다”며 “석유화학 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성 장관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인 (주)대건테크도 방문해 공장 가동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제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기 위해 집적적인 산단 자체를 스마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전국의 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투기과열지구내 3억 이상 집사대 ‘증여·상속·주담대’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을 개정

국토부, 개정법 10일부터 시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서 신고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까지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

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된다.

/채신화 기자 csh9101@

AI 등 미래먹거리 부문 확장할 듯

>> 1면 ‘삼성, 오늘 인사...’서 계속

60대 경영진을 50대 임원으로 교체하는 방식이었다.

삼성전자 주요 사장단 중에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이 1958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많다.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1959년생으로 내년 60대가 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별다른 이동은 없을 전망이다. 김기남 사장은 여전히 DS 부문에서 높은 신뢰를 유지하고 있고, 이동훈 사장은 작년에 처음 보직을 맡은 까닭이다.

두 대표는 3분기까지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전영현 삼성 SDI 사장과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1960년생, 삼성전자 고동진 IM부문장과 김현석 CE부문장이 1961년생이다. 아직까지는 세대교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단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실장 사장과 전동수 삼성메디슨 대표는 1958년생으로 60세를 넘긴데다, 3년 이상 재임한 탓에 거취에 주목이 쏠린다.

◆실무진에 신상필벌?

/김재용 기자 juk@

‘신상필벌’ 원칙은 삼성그룹이 이어온 주요 인사 키워드다. 때문에 당장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는 IM 부문에서는 개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에서 IM사업부를 중심으로 전체 임원을 10% 가량 줄일 예정이다. 고동진 IM부문장은 유임이 거의 확정적이지만, 모바일 사업과 겹친 중인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손을 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과 전장사업 등 미래 먹거리 부문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관련 부문을 키울 수 있다는 추측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 DS부문에 전장사업부를 신설하고 허만을 인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경쟁사에 비해서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박종환 부사장이 담당하고 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팀장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 팀장은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임원이다. 최근에도 이 부회장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젠 동남아” 越·인니 공략 ‘후 글로벌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베트남·인도네시아 방문
현지 사업장 등 시찰, 총리 면담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동남아시아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중국 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동남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출방에는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이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 등도 함께한다.

신 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4년 완공된 롯데센터 하노이와 2022년 완공 예정인 롯데몰 하노이 등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하노이 시장과 만난다.

다음날에는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호찌민으로 이동해 현지 사업장과 착공 예정인 에코 스마트시티 등 현장을 방문한다.

롯데는 베트남에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시네마,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등 16개 롯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가 진출해 있고, 1만10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6년까지 롯데의 베트남 총투자금액은 1조8000억원이며, 지난해 롯데의 베트남 매출액은 1조600억원으로 전체 해외 매출액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6일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한다. 이곳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총 4조원 투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 단지 부지를 찾는다.

인도네시아에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지알에스, 롯데케미칼 등 10여개 계열사가 나가있다. 롯데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약 8000명

의 현지 직원이 근무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인 KS(크리카타우 스틸)가 소유한 타이탄 인도네시아 공장 인근 부지 사용 권한을 매입했으며 올해 2월 토지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롯데는 이곳에 에틸렌을 생산하는 NCC(나프타 분해설비)를 포함한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공백기간 동안 챙기지 못한 글로벌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에 새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현대백그룹 식구된 한화L&C “현대L&C로 새출발”

토탈 리빙·인테리어 기업 발돋움
유통·패션과 ‘3대 핵심사업’ 육성



현대백화점그룹이 종합 건자재 기업 한화L&C에 대한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명을 ‘현대L&C’로 바꿔 새롭게 출범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한화L&C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종 인수 금액은 3666억원이다.

앞서 그룹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은 지난 10월 한화L&C 지분 100%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최근까지 조직체계 정비, IT 통합, 브랜드 변경 등 ‘인수 후 통합 작업(PMI)’을 진행해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특히 한화L&C 최

종 인수와 동시에,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하고 새 CI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L&C는 이날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선보이는 현대L&C CI는 홈페이지와 분사 및 충청·호남·경북·경남 등 4개 지사, 세종 사업장, 테크센터(연구소) 등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인테리어 전시장과 직영점, 대리점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최종 인수 확정으로 한화L&C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편입된 만큼 그룹 내 계열사간 동일성

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현대L&C’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 확정으로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현대리빙의 가구·인테리어 소품 사업 외에 창호·바닥재·인조대리석 등 건자재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매출 2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토탈 리빙·인테리어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지난해 현대리빙의 매출(연결기준)은 1조 4447억원이며, 현대L&C는 1조 63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측은 현대L&C 인수를 계기로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유통(백화점·홈쇼핑·아울렛·면세점)과 패션(한섬·현대G&F·한섬글로벌) 부문과 함께 그룹의 3대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1514조 가계빚, 추가이자 2.5조 411만명 다중채무자 ‘시한폭탄’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 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란 개념을 통해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부채와 물가를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늘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란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저금리 파다는 끝났다

(2) 내년 경제부담 '부채'

韓경제, 부채 디플레이션 흡사해
美 추가금리 인상엔 뇌관 터트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500조원으로 불어났다. 내년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은 42조원(무보증 회사채)이 넘는다.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부채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가계빚 1514조... 韓경제 뇌관

2019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징후는 '부채'다. 특히 미국이 추가금리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이 뇌관을 건들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514조4000억원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그만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

나는 셈이다. 판매신용을 제외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427억원 중 변동금리 대출이 약 70%임을 감안한 것이다.

왜 금리가 걱정일까.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빚의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쌓인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기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411만명에 달하는 다중채무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쓰는 사람이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이 493조원에 달한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할 때 부채 고위험가구가 34만6000가구(전체의 3.1%)이고 이들의 부채가 5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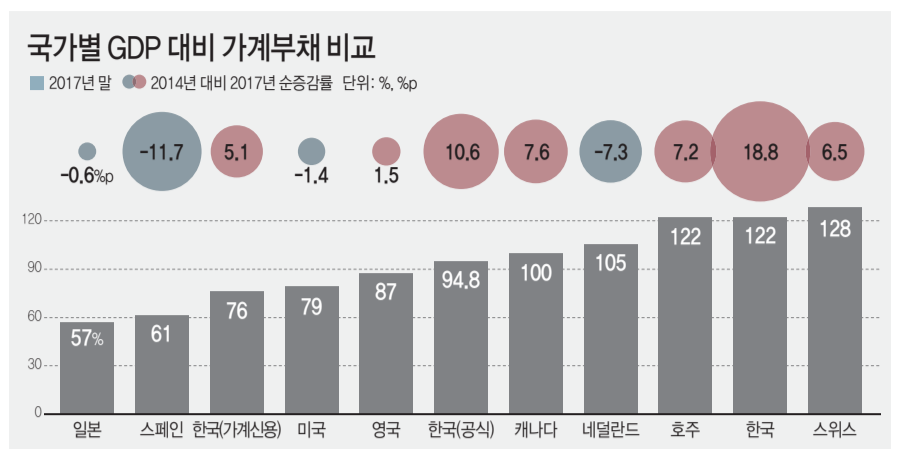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

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이처럼 가계부채의 악몽을 경험한 선진국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마다 과도한 가계빚을 줄이는 작업에 들어갔다. 빚을 줄이는 게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미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강중구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가계부채 누적으로 소비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투자 목적의 대출 증가를 줄이고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기업 빚 만기 42조, '복합충격' 우려
"내년 초 만기가 돌아오는 저축은행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걱정이다. 회사채 시장에서도 부정적 관측대상(watch list)으로 낙인 찍힌터라 투자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공장 돌릴 돈이 궁한 형편이다." 한 중견 기업 재무담당 임원 A씨의 하소연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회사채 만기)은 42조 1190억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퍼스트저축은행 전세자금대출

연 3.20%

돌려드림론 개인신용대출

최저 연 3.21%부터

퍼스트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연 3.08%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 /연합뉴스

싫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경기는 바닥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 금융권 심사가 더 간간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중론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자금 사정까지 나빠지면 '신용 강등'까지 걱정해야 한다. 회사채 등 자금조달 시장에서 '신뢰는 곧 돈'이다.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오너나 외부 변수가 터질 경우 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 인상은 투자와 소비 등 내수에 타격이 된다"면서 "특히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건설경기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유동성마저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악 시나리오는 주택가격 하락과 기업부채 부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다. '자산 버블 붕괴(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한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2%포인트 하락한다.

/김민호 기자 kmh@metroseoul.co.kr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월드클래스 300기업인과의 대화. /배한남 수습기자

혁신성장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

월드클래스300기업인

“금융 관련 제도 바뀌어야” 토로

중견·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 기업인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으로는 투자유치가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회가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월드클래스300' 기업 대표 19명 등과 함께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규제와 법안, 금융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간담회는 월드클래스300 출범 이후 정치권과 함께하는 첫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안정적 경영을 위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덕 제양정필 부사장은 최근 어려워진 자동차 부품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부사장은 “수소차, 전기차가 늘어난다 해도 2050년까지는 기존 매년기관차가 70%를 차지할 텐데 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많다”며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운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채권 기한 한도를 늘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우 평화산업 연구소장도 “정부가 보증한 기술 기반 회사라면 금융기관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며 “이런 투자 방식자체가 성공방정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월드클래스300만을 위한 금융 제도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현 우진산전 사장은 “2012년부터 선정됐는데 (월드클래스300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만한 계기가 별로 없었다”며 “보증서 발행 시 수수료 출현 등에 있어 최소한 기업은행·산업은행에서도 담보가 조금 부족해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한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배한남 수습기자 ericabae1683@

“게임출시 코앞인데... 52시간 맞춰 퇴근하라니”

ICT분야 52시간 근무 토론회

근로시간 연장보다 유연성 강화 필요

“판호(라이선스) 문제로 중국 게임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도록 게임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합니다.”(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소프트웨어(SW) 기업의 경우 하반기에 초과근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오픈이 코앞인데 52시간 맞춰 퇴근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 여파가 시스템통합(SI) 업체, 게임 업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책을 손질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몰려있는 업계 특성 상 일괄적인 제도 도입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당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린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당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ICT 업계 관계자들의 아우성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정산기간 연장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저녁 먹을 시간도 없는 삶이 도래한다”며 “SW 산업 특성상 대형 프로젝트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현업이 돌아가는 중간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똑같이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용 여건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지식노동이 증가했는데 무조건 시간과 공간으로 근무환경을 관리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

다는 얘기다. ICT 업계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ICT업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연 근로제의 일종으로 한 달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업계에서는 이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고 지적하고 있다. 단위 기간이 한 달이면, 대형 프로젝트가 몰려버린 하반기에는 기준을 맞추 수 없다는 목소리다. 채효근 한국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수주형 산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업 시간을 예측하지 못한다”며 “정산 기간이 한 달로 돼 있는데 3개월, 6개월로 늘리는 등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DGB 비리수사’ 매듭... 은행장 선임 급물살 탄다

펀드 손실금 불법보전사건 마무리 채용비리 박명흠 ‘혐의없음’ 처분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 진행될 듯 지주-은행간 후보요건 조율 관건

DGB대구은행 관련 비리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대구은행장 선임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개월째 공석 상태인 차기 행장 선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점이 대구은행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보전 사건과 DGB캐피탈 채용비리 사건을 마무리했다. 은행장 선임의 최대 변수였던 대구은행 비리 수사가 매듭을 짓게 된 셈이다.

앞서 검찰은 대구은행이 지난 2014년 6월 사비를 각출해 수성구청 펀드손실액 12억2000만원을 보전해준 혐의로 대구은행 전직 은행장 3명을 비롯한 임직원 5명



DGB대구은행 비리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은행장 선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DGB대구은행전경. /DGB대구은행

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보전금을 분담한 은행 임원 8명과 손실금액 계산과 전달역할을 한 직원 2명, 세무과장 지시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구청 공무원 5명은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DGB캐피탈에 채용비리와 자

녀 부정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명흠 대구은행장 권한대행도 법리상 위계로 면접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불기소처분으로 심판을 피하게 된 임환오 전 부행장과 노성석 전 부

사장, 성무용 전 부행장과 강영순 전 DGB캐피탈 부사장, 이성룡 전 DGB데이터 시스템 대표 등 5명과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이 차기 대구은행장 후보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 3월 박인규 전 DGB금융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9개월째 공석으로 운영돼 왔다.

대구은행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가 금융 감독기구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비상경영계획 승계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직무수행일 40일 이내에 개시된다. 이사회는 40일 이내로 최고경영자 후보를 심의 확정 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안건을 부의해야 한다.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은 지난

달 통과된 DG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지주 사회사최고경영자추천위가 갖게 된다.

일각에서는 대구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지주이사회와 은행이사회 간 후보요건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주이사회는 대구은행장 후보로, 금융회사 20년 이상 경력과 5년 이상 등기입원 경험, 은행사업본부 임원 경험 등을 제시한 반면 은행이사회는 금융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제시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신임 대구은행장 후보추천권을 지주이사회가 갖고 있지만 은행장 선임과정에서 은행 측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주위에 대한 공식적인 세부일정이 내년 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KB금융그룹 ‘초등돌봄교실’ 1호 개관

내년 상반기까지 369개 구축 계획

KB금융그룹은 3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초등학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1호 초등돌봄교실’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김석환 홍성군수 및 학부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KB금융의 지원을 통해 설치한 첫 사례며, 학교 밖이 아닌 학교 내 돌봄교실 조성에 있어 금융권 최초의 지원이다.

교실 또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디자인 설계 단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고,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한 입체 공간 구성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력과

감성 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했다.

KB금융은 ‘KB 드림즈 커밍 프로젝트(KB Dream’s Coming Project)’의 일환으로 이날 개관한 1호 초등돌봄교실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에 총 369개의 돌봄교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750억원의 지원을 통해 약 1700개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250여개 학급을 조성할 예정이다.

윤 회장은 “KB금융이 교육부, 홍성군과 함께 협업해 조성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아동통합지원센터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온 힘을 모아 개소하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카카오뱅크 카톡으로 회비 독촉하고 잔액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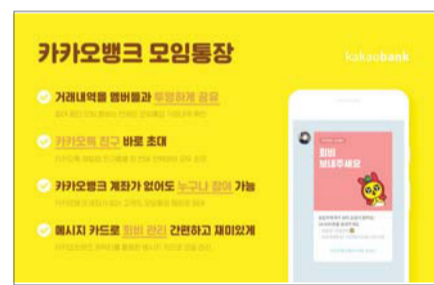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내놨다. 기존 시중은행의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 구성원이 잔액이나 내역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금융에 소셜의 기능을 더했다. 모임 구성원 모두가 함께 쓰고 같이 볼 수 있으며, 계좌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멤버도 빠르게 초대할 수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기존 은행들과 달리 은행 상품에 소셜의 성격까지 가미해



각종 동호회나 모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모임통장 역시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같지만 다른’ 대표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 3년 연속 ‘韓 최우수 은행’ 선정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금융전문지 더뱅크(The Banker)가 주최하는 ‘더뱅크 어워드 2018(The Banker Awards 2018)’에서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South Korea)’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16년 한국 최우수은행(Bank of the Year in South Korea 2016), ‘2017년 아시아 최우수 은행(Bank of the Year in Asia-Pacific 2017)’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은행’ 부문 수상이다.

우리은행은 ▲탁월한 경영성과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주사 전환 ▲글로벌 및 자산관리 부문의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 능력의 향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미 기자

www.pdna.co.kr

사랑받는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물찬탄력, DNA 에너지를 담다

P+DNA

INTENSIVE DNA CREAM

Protects the barrier of sensitive skins and helps revitalizing it by applying enriched nutritive cream.

P+DNA

50g

INTENSIVE DNA SERUM

Protects the barrier of sensitive skins and helps revitalizing it with intensive multitasking serum.

P+DNA

50ml

-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찢어질 듯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원인. 바다 송어의 물찬탄력,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수분과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기쁘게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벵골추출물, 여성초추출물, 치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C 조선일보 D 중앙일보 E 동아일보

MFDS 식약처 기능성 보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조선 3사, 연말 수주 붐물... 'LNG선'이 효자네

현대중공업

전세계 발주 절반 넘는 24척 수주

대우조선해양

올 목표 73억 달러의 '75%' 달성

삼성중공업

추가 2~4척 수주면 올해 목표 넘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국내 조선3사들의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수주가 12월에도 이어지면서 올해 목표 수주량 달성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3사들은 올해 목표 수주량의 60%이상을 달성했다. 여기에 글로벌 석유기업 셸(Shell)사가 다수의 LNG선을 이달 중 발주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조선3사들의 수주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가장 많은 양을 수주한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 수주목표 132억달러의 94%인 145척, 124억달러를 달성하며 LNG선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산하 조선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아시아 선사와 총 3억 7000만 달러 규모의 17만4000㎥급 LNG운반선 2척과 지난달 그리스 CMM사로부터 LNG선 2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들 선박을 오는 2021년부터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로써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45척 중 절반이 넘는 24척을 수주하게 됐다. 또한 이번달에는 프레드릭슨으로부터 LNG선 2척 확정수주가 예상된다. SCF그룹 LNG선의 수주도 기대된다.

현대미포조선은 12~1월 중 셸사로부터 최대 12억달러(확정 6억+옵션 8억) 탱커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월 LNG 이

중연료추진선을 국내 최초로 인도해 이중연료엔진과LNG연료공급시스템 패키지에 대한 기술력을 확인했다. 자체 개발한LNG운반선완전재액화설비, LNG재기화시스템, LNG병커링 연료공급시스템, LNG화물창 등 LNG선 통합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수주목표인 73억 달러 대비 75%인 55억달러를 수주했다. 12월 한 달 동안 16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면 97%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LNG선 6척 13억달러, 방산 3억달러로 추정된다. 또 마란가스로부터 LNG선 2척외 4척 이상 확정 수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목표 수주액 82억달러의 61%인 50억달러를 올해 수주했다. LNG선을 추가로 2~4척 수주하게 되면 70억달러를 넘을 수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은 올해 연말까지 LNG선 발주가 총 60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후에도 꾸준한 발주세가 지속되는 등 2027년까지 연평균 60척 이상이 발주될 것으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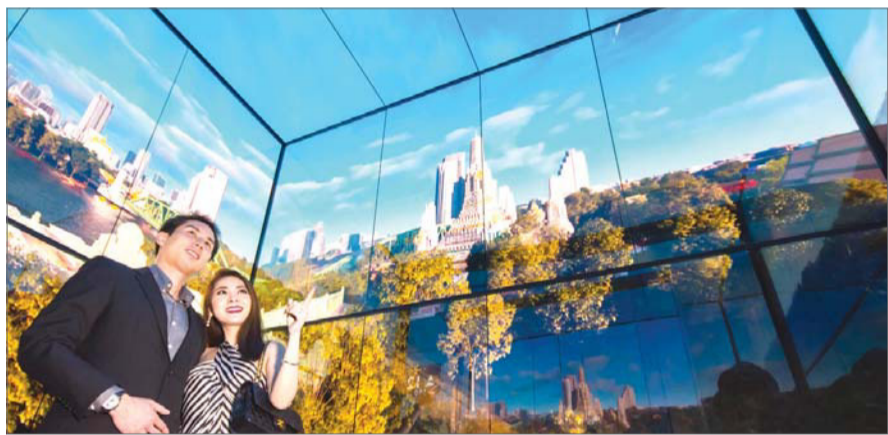
망한다.

미국의 적극적인 에너지 수출 기조와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소비정책 등으로 글로벌 LNG의 물동량이 늘어나고, LNG선 운임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NG선을 제외한 탱크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에서는 저가 수주 전략의 중국 조선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수주가 많다고 해서 조선업 전반의 '호황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수주량 2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발주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쏠리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조선사는 일감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선 수주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조선 3사가 올해 목표 수주량을 달성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전자는 태국 마하나콘타워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레드 사이니지월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LG전자

태국 최고층 빌딩에 'OLED 사이니지월'

LG전자, 방콕시내 영상 등 재생

LG전자 올레드가 태국 하늘을 오르내린다. LG전자는 최근 태국 방콕 마하나콘타워 전망대 전용 엘리베이터에 OLED(올레드) 사이니지월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올레드 사이니지는 엘리베이터에 문을 제외한 4개면을 감싼다. 하늘에서 보이는 방콕 시내 영상을 재생해 엘리베이터 탑승객에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엘리베이터 2대에 55인치 올레드사이니지를 56장이나 투입했다.

어느 각도에서도 정확한 색을 구현할뿐 아니라 검은색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어 가상현실(VR)과 같은 몰입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도 무게가 LCD 사이니지 40% 수준에 불과해 탑승 제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하나콘 타워는 높이가 314m인 태국 최고층 건물이다. 78층 루프탑에는 최근 '마하나콘 스카이워크'가 문을 열고 관광 명소로 부상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엘리베이터 '스카이서틀'에도 올레드 사이니지 월을 설치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재운 기자 juk@

카카오 AI 기술 일반인에 공개

'카카오 i 디벨로퍼스 OBT' 시작

챗봇·음성 서비스 등 AI 제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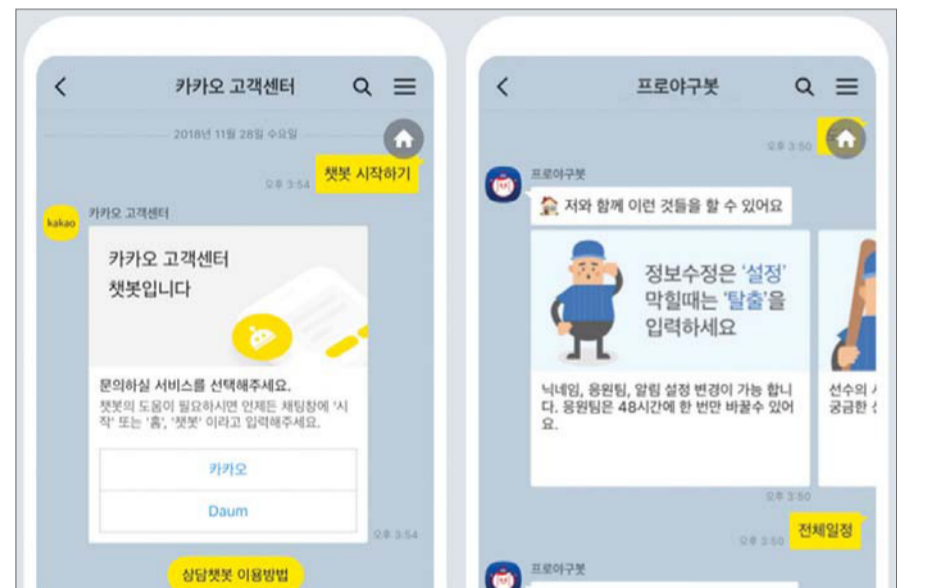
카카오는 카카오톡 인공지능(AI) 개발자센터 '카카오 i 디벨로퍼스'의 오픈 베타 테스트(OBT)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 i 디벨로퍼스에서는 카카오톡의 AI 기술을 사용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AI 설계 플랫폼 '카카오 i 오픈빌더(이하 오픈빌더)'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오픈빌더 하나의 플랫폼에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챗봇, 스마트스피커 카카오톡 미니에 활용되는 음성형 서비스 등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오픈빌더를 통해 1:1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 중인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더불어 일반 개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카카오톡 챗봇으로 음식과 음료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소풍몰의 고객센터 챗봇을 개발해 기본적인 고객 응대, 환불 접수 등을 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카카오 인공지능(AI) 개발자센터 '카카오 i 디벨로퍼스'의 오픈 베타 테스트(OBT)를 시작한다. /카카오

챗봇 제작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누구나 카카오톡 i 디벨로퍼스에서 OBT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면 오픈빌더를 활용해 직접 챗봇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오픈빌더로 개발된 챗봇과 플러스친구 계정을 연결할 수 있어, 플러스친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플러스친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직접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챗봇 공식 에이전시를 통

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카카오 i 디벨로퍼스에서는 스마트스피커 카카오톡 미니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음성서비스인 보이스봇 설계 기능을 제공하며 제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개발된 보이스봇은 내부 심사를 거쳐 카카오톡 미니의 음성서비스로 적용돼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 CO2 배출규제 대응기술 업계최초 인증

삼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미국 선급협회(ABS)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스마트십 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스마트십 솔루션 '일레리만십'에 적용된 이 기술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출발 및 도착 항구의 위치정보와 시간을 기록하고, 운항 상태에 따른 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운항 리포트 생산한다. 이에 따라 수기 작성에 따른 후면여과가 없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아 선박 운영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삼성중공업은 2016년부터 새로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십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 LNG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50여척에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인증으로 스마트십 기술에 대한 선사들의 신뢰성이 높아져 실선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EU회원국 항만을 입·출항하는 5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료 사용량 등의 운항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EU-MRV'규제를 시행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U+ 골프' 채널 보면서 골프실력 키운다

LGU+ 비시즌 레슨 콘텐츠 강화

LG유플러스는 골프중계 서비스 'U+골프'에서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비시즌 기간 동안 오리지널 골프 레슨 예능 '셀위골프', SBS골프 해설위원 장훈석 프로의 해설과 레슨이 포함된 실전 영상 등 골프 레슨 콘텐츠를 추가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선보인 U+골프는 200만명 이상의 일별 누적 이용자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KLPGA 비시즌 기간인 내년 3월까지 U+골프 독점 오리지널 골프 레슨 예능 프로그램 '셀위골프(Sha



모델들이 'U+골프'를 시청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l we golf')를 공개했다. 골프 예능 셀위골프는 미스 수프라내셔널 한국대표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플루언서 이은비와 미스코리아 정두란, 미녀 프로

골퍼 전지선, 최은진 프로가 출연해 실제 필드에서 골프 레슨을 진행한다.

셀위골프는 U+골프 내 단계별 영상 메뉴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두 편씩 공개된다. 이달 중 U+비디오포털에서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셀위골프 외에도 '출전선수 스윙보기' 영상에 SBS골프 해설위원 장훈석 프로의 전문 해설과 레슨이 포함된 영상과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주요 하이라이트 영상 및 단계별 1분 레슨 영상도 추가 제공한다.

U+골프는 가입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구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개소세·프로모션 효과... 11월 車 내수실적 회복세

현대차, 전년동기비 판매 0.4% ↑
기아차, RV 부진 영향 0.7% 감소
쌍용차, 17.8% 증가... 티볼리 효과
르노삼성, SM6 업고 1.3% 성장
한국지엠, 말리부 부진 19.9% ↓



국내 완성차 업계 로고.

국내 완성차 업계가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와 프로모션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내수시장에서 판매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1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총 6만4131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가 1만191대(하이브리드 2577대 포함) 판매되며 국내 시장 판매를 이끌었고, 이어 아반떼가 6243대, 쏘나타가 5335대(하이브리드 426대 포함) 등 총 2만3544대가 팔렸다.

RV는 싼타페가 9001대, 코나 5558대(EV모델 2906대 포함), 투싼 4280대, 맥스 크루즈 19대 등 전년 동월 대비 38.1%가 증가한 총 1만9018대 판매를 기록했다

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가 2889대, G70가 1550대, G90(EQ900 333대 포함)가 882대 판매되는 등 총 5321대가 판매됐다. 지난 달 말 출시한 G90는 2주간의 사전 계약 기간에만 6713대의 실적을 달성하며, 연말연시 본격적인 인사시즌을 앞두고 큰 기대를 모았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승용 모델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RV 차종 판매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0.7% 줄어든 4만 8700대를 판매했다. K시리즈를 앞세운 승용 모델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만 2546대가 판매됐다.



현대차 그랜저G

RV 모델 중에서는 카니발이 전년 대비 16.2% 증가한 6571대로 선전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기아차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반면 그 외 다른 RV 모델들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RV 모델은 전년 대비 15.5% 감소한 2만 475대가 판매됐다.

쌍용차는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쌍용차는 지난달 1만330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전년 동기(8769대) 대비 17.8% 늘었다. 차종별로 보면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 비중이 높다. 특히 쌍용차 역대 픽업 모델 중 최대판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는 두 달 연속 4000대 판매를 돌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3.8% 증가하는 등

내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티볼리와 G4 렉스턴은 각각 4254대, 1423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르노삼성도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8407대 판매하며 전년 동기(8302대) 대비 1.3% 성장했다. SM6는 지난달 1962대가 팔렸다. 최상위 트림이 전체 판매 중 63%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SM6 프라임 모델이 544대 판매되며, 전월 대비 6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QM6는 전년 동기 대비 30.1% 늘어난 3749대가 팔리며, 2개월 연속 월간 판매량 3000대를 돌파했다.

반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8294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만349대) 대비 19.9% 감소했다. 한국지엠의 내수실적을 견인하는 주력 모델인 스파크가 3965대 팔리며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세를 기록해 감소폭을 줄였다. 한국지엠이 수입·판매 중인 중형급SUV 이퀴녹스는 245대가 판매돼 전월 대비 29.6% 늘었다. 다만 인기 차종인 중형세단 말리부는 1653대 판매돼 전년동월 대비 24.9% 감소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제네시스 G70, 美 전문紙서 '올해의 차'

세계 최고 車 전문지 모터트렌드 BMW3시리즈 등 19개 차종 비교

제네시스 'G70'이 세계 최고 권위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인 미국 모터트렌드가 선정한 '2019 올해의 차'에 등극했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모터트렌드는 최근 발간한 2019년 1월호에서 '스타가 태어났다(A Star is born)'는 제목과 함께 '한국의 신생 럭셔리 브랜드가 중앙 무대로 강력하게 파고들었다'는 문구의 커버 스토리 기사를 게재하며 G70 올해의 차 선정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번 올해의 차 평가는 제네시스 G70, BMW 3시리즈 등 총 19개 차종을 대상으로 비교 테스트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모터트렌드는 "30년 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 현대차는 4995달러의 낮은 가격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현대차 포니를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입은 액셀을 미국에 출시했다"며 "당시 미국인들은 '현대'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

야 할 지도 몰랐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제네시스는 BMW 3시리즈의 강력한 대항마 G70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모터트렌드 평가단은 제네시스 G70에 대해 다양한 찬사를 보냈다. 주행 테스트인 크리스 윌튼은 "G70은 다루기 쉬운 야수와 같다. 이 차는 인피니티 G35보다 고급스럽고 벤츠 C클래스보다 날카로우며, 아우디 A4보다 훨씬 기민하다"고 평가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디자인 평가도 이어졌다. 크리스 테오도어 객원 평가위원은 "마치 메르세데스-벤츠처럼 뛰어난 인테리어"라고 평했다.

/양성문 기자

첨단 안전기술 탑재 '2019년형 K7' 출시

기아자동차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기본 제공
세제 혜택시 3053만~3969만원

기아자동차가 3일 사용자 편의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9년형 'K7'을 출시했다

2019년형 K7은 고속도로 주행보조(HDA)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를 가솔린·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 이상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HDA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설정 주행 시 자동 활성화되는 기능으로 앞차와의 거리 유지, 차로 유지, 도로별 제한속도에 따른 주행 설정 속도 자동 변경 등의 기능이 포함된 첨단 주행안전 기술이다.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를 경감시켜준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같은 안전장치도 적용됐다. 현대판 무

기아차 '2019년형 K7'



선충전 시스템을 가솔린·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적용했고, 내비게이션에서 고화질 DMB를 수신할 수 있다.

디젤 2.2 모델에는 강화된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요소수로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사용했다. SCR을 추가로 장착함에 따라 2018년형보다 가격이 100만원 이상 올랐다.

2019년형 K7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인하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경우 가솔린 2.4 모델 3053만~3329만원, 가솔린 3.0 모델 3303만~3545만원, 가솔린 3.3 모델 3709만~3969만원이다. 디젤 2.2 모델은 3478만~3724만원, 하이브리드 모델 3532만~3952만원, LPI 모델 2625만~336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양성문 기자

한화방산 4사, 중동·북아프리카 개척 속도

이집트 '에덱스 2018' 참가
맞춤형 해안포 방어체계 선보



한화 전시부스

한화방산계열사 4사(㈜한화·한화시스템·한화지상방산·한화디펜스)가 중동, 북아프리카 방산시장 개척에 나섰다 3일 밝혔다.

한화방산계열사 4사는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되는 방산 전시회 '에덱스 2018(EDEX 2018)'에 통합 전시관을 열고 방산제품을 선보인다.

에덱스2018은 이집트 정부가 후원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올해 전시회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10개국 300여 업체가 참가한다.

한화는 한국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전시

부스(140㎡)를 마련했다. 국토 상당 부분이 해안선인 이집트의 지형과 홍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해안포 방어체계'를 선보였다.

/정연우 기자

현대글로벌비스, 중고차 경매출품 업계 첫 100만대 돌파

현대글로벌비스의 중고차 경매 누적 출품 대수가 업계 최초로 100만대를 돌파했다. 첫 경매를 시행한 지난 2001년 2월 이후 17년 9개월만이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중고차 거래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11월 30일까지 총 누적 중고차 경매 출품 대수가 100만382대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경매는 차량을 경매장에 출품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매매업체에게 판매하는 도매 유통 서비스다.

현대글로벌비스는 경기 분당과 시화, 경남 양산의 경매장에서 각각 매주 1회씩 자동차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경매 첫 해 분당경매장에서 1만8대의 중고차를 거래한 현대글로벌비스는 시화경매장을 새로 연 2008년까지 25만대 이상을 경매로 유통시켰다. 2012년 영남권 최



지난달 30일 100만번째로 중고차가 출품된 현대글로벌비스 시화경매장에서 매매업체 회원들이 자동차 경매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

초의 대규모 경매장인 양산경매장을 개장해 누적 출품 대수 50만대를 기록한 후 마침내 지난 11월 100만대를 넘어섰다. 2018년 기준으로 평균 회당 591대, 월간 7687대의 중고차가 출품돼 11월까지 8만 4558대가 거래됐다. 올해 말까지 전년보

다 3000여대 증가한 9만2000여대의 중고차가 출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벌비스 관계자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를 포함해 다양한 차종의 거래가 이뤄져 출품인과 도매업체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벌비스의 중고차 경매 사업은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량을 매각하기 때문에 판매 과정과 결과를 믿을 수 있고, 경매 참여 업체는 현대글로벌비스의 정밀 성능점검을 마친 양질의 중고차를 대량으로 낙찰받을 수 있어 원활한 상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반도체 강호의 고수들이 함께 살아가는 반도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옛날 강호의 협객들이 비급의 전수를 통해 새로운 무공을 탄생시키듯
SK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기술과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반도체 세상

SK하이닉스 최고의 경쟁력은 '상생'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증권 다이제스트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계좌개설 서비스

신한금융투자는 앱(APP)설치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계좌개설 서비스’는 계좌개설을 위해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타 금융기관 계좌만 있으면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기념해 진행하는 ‘모바일 웹 산타크로스의 선물’ 이벤트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한 신규·휴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6일 ‘키움 투자콘서트’

키움증권은 투자 고수의 강의와 대담 형식인 ‘키움 투자콘서트’를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2층 교육장에서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한다. 이번 ‘키움 투자콘서트’는 한봉호 대표를 초청해 ‘꾸준한 수익의 비결’이란 주제로 시장을 알고 자기 자신의 기술로 수익을 내는 방법론적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회 2부에서는 김순영 채널K 앵커가 ‘한봉호 대표와의 대화’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한봉호 대표를 현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주식트레이딩경영 책임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키움 투자 콘서트 참가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영웅문S 앱에서 할 수 있다.

/손업지 기자

유안타증권 채용전제형 인턴사원 모집

유안타증권은 오는 10일까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제형 동계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이번 인턴사원 채용은 세일즈&트레이딩(Sales&Trading), 투자은행(IB), 리서치, 본사관리, 지점영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한다.

입사지원은 유안타증권 채용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각 모집부문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2019년 1월부터 풀 타임 근무로 진행되며 집합연수, OJT(On the Job Training·교육 훈련) 등 다양한 교육 및 현장 체험을 하게 된다.

과정 종료 후 근무 평가 및 대표이사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입직원으로 채용 연계한다.

이중적 유안타증권 인사팀장은 “신입사원 전원을 인턴 수료자 대상으로만 채용하는 만큼 이번 채용은 당사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손업지 기자



윤경은 KB증권 각자 대표, 전병조 KB증권 각자 대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

임기만료일	2018.12	2019.03	2019.03	2019.03	2019.03	2019.03
3분기 누적 순이익(억원)	2198	2300	3196	1420	652	367
전년비 증가율	66.50%	26.30%	18.90%	53.70%	54.10%	25.30%

/각사

증권가 CEO 올 ‘好실적’에 연임 파란불

임기만료 앞둔 증권가 CEO 성적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자기자본 2.7조→3.2조 연임 확실히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3분기 누적순익 전년비 19% 늘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
후자전환 후 누적순익 652억 실적

올해 서울 여의도 증권가는 투자은행(IB) 부문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지난 3월 IB부문 정영채 대표가 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12년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활약해 온 유상호 사장 후임에 IB부문 전문가로 꼽히는 정일문 부사장이 내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다른 증권사 CEO의 거취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호실적을 기반으로, IB역량 강화를 위해 대부분 증권사 CEO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증권사 CEO 임기만료되는 증권사는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먼저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 30일 하나금융투자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2조 7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면서 IB부문 체질강화를 선언했다.

때문에 IB부문 경쟁력을 키워온 이 사장이 내년에도 연임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2016년 이 사장 취임 후 하나금투의 IB 수익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3분기 IB그룹의 순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8.6% 늘어난 66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3분기 누적 순영업이익은 136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그룹 내 하나금투의 수익 비중도 높은데다 IB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사장

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9년 동안 자리를 지킨 ‘장수 CEO’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내년 3월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최 부회장 역시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자기자본 5000억원대 중소형 증권사에서 3조원대 대형사로 키워낸 만큼 이번에도 연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3196억원으로 전년보다 18.90%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사장의 연임 전망도 긍정적이다. 권 사장은 지난해 6월 역사상 첫 공채 출신 사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적자를 기록하던 한화투자증권을 지난해 후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올해는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54.1% 늘어난 652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사장도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지만 올해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연임을 통해 체질 개선에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B증권은 각자대표제에서 단일 대표로 바뀔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현재 KB증권은 윤경은, 전병조 사장의 투톱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두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이달 중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연임여부가 결정된다.

KB증권이 합병 후 안정기에 접어들 만큼 의사결정 효율성을 위해 단독 대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사장과 전 사장은 각각 옛 현대증권과 옛 KB투자증권 대표를 맡아오다 지난해 1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각자대표가 됐고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했다.

KB증권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순이익은 21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5% 급증했다. 윤 사장이 리테일과 트레이딩을 맡았고, 전 사장이 IB 부문을 맡으며 각자 사업을 키웠고,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IB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각자 대표체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투자자문사 10곳 중 6곳 ‘적자’... 순이익 7.1% 줄어

금감원, 중소형사 수익성 악화
전분기비 수수료수익 26.2% ↓

〈전업 투자자문사 손익현황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사업연도 4~9월		2018 사업연도 4~9월		전분기 대비 증감(B-A)		
	4~6월	7~9월	4~6월(A)	7~9월(B)			
순이익	227	208	20	270	140	130	△10

/자료=금융감독원

투자자문사들이 10곳 중 6곳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사의 수익성 악화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7~9월) 중 178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13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1% 감소했다. 계약과 고유자산 운용이익은 늘었지만 수수료수익이 다소 줄었다. 수수료수익은 231억원으로 전분기보

다 26.2% 줄었다. 운용성과보수를 주로 4~6월 중에 수취하면서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커졌다. 고유자산운용이익은 15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3.2% 늘었다.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은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감소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계약고(일임·자문)는 15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7% 증가했다. 일임 계약고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신규 계약 체결로 4.1%, 자문계약고는 공모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자문수수 증가로 18.2% 늘었다.

회사별로는 178개사 중 101개사가 적

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56.7%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4%로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 투자자문사의 계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적자 투자자문사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중소형사의 수익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며 “수익기반이 취약한 중소 투자자문사의 운용자산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상미 기자 smahn1@

ISA 누적수익률 4.99%p 급락한 3.13%

현대차증권 MP, 19.46%로 1위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10월 누적 수익률이 전월(8.12%)보다 대폭 하락한 3.13%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고수익추구형(초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MP)가 누적수익률 19.46%로 1위에 올랐고, 회사별 평균 누적 수익률에서는 NH투자증권이 8.9%로 1위를 기록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일임형 ISA MP 204개의 누적 수익률은 평균 3.13%로 전월 말보다 4.99%포인트 하락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동반 하락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0월 한 달 간 코스피지수는 약 13.4%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초고위험이 25개 MP 평균수익률이 4.90%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 3.63%, 초저위험 3.25%, 저위험 2.71%, 중위험 2.11% 등의 순으로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업지 기자

연내 전국 아파트 2만2906가구 분양

서울·수도권서 1만2461가구

올해 끝자락인 12월에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11대책으로 연기했던 물량들이 남아 있어서다.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는 2만2906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중 1만8034가구가 일반분양한다. 서울 및 수도권 물량(1만2461가구)은 지난달(6502가구)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 해보다는 줄어든 물량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3만1133가구보다 올해 1만8034가구

로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6.4%(1만 1714가구→1만2461가구)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9201가구(14곳, 51.0%)에 인천 2481가구(2곳, 13.7%), 경남 1442가구(1곳, 7.9%), 광주 1287가구(5곳, 7.1%), 대구 1003가구(2곳, 5.5%) 등이다.

SK건설이 분양하는 ‘DMC SK뷰’는 수색9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로 59~112㎡, 753가구로 조성된다. 경의중앙선·공항철도·6호선 등 3개 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경의중앙선 수색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청계산에 백운호수... 교통까지 편리 '땅값 꿈틀'

신규택지 현장에 가다

의왕 청계

향후 의왕청계역 개통하면 역세권 숲세권·학세권으로 알짜배기 입지

“도심에서 개천을 끼고 학군에 교통까지 갖춘 지역이 또 있을까요?”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의왕 청계2)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입지다. 산·개천이 가까이 환경이 쾌적하고 의왕청계역 개통, 백운밸리 개발 등의 각종 호재가 넘친다. 그린벨트로 묶어두기엔 아까운 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얘기다. 50여년 만에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일부 단지는 벌써부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냥 두기 아까운 땅’... 의왕 청계2

지난달 30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15분 가량 이동하니 한적한 분위기의 포일동 602번지 모습이 드러났다. 높은 빌딩과 건물들로 빽빽한 수도권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하천을 따라 놓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 하천을 따라 놓인 산책로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위).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602번지 일대. /채신화 기자

인 산책로를 걷는 주민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산책로 맞은편에는 청계가압장, 물류창고, 폐공장 등이 잇달아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의 대부분은 밭과 공터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모습이다.

의왕시는 시 전체 면적의 84.6%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일대를 ‘알짜 부지’로 보고 꾸준히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해 왔다. 실제로 이곳 부지는 농원이나 식당, 공터 등으로 놀리기엔 아

까울 정도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2km 거리인 데다 국지도 57호선과 연계해 판교, 과천, 광명 등으로 이동이 쉽다. 향후 월곡~판교 북선전철(월곡판교선) 의왕청계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에 진입, 교통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고려해 9·21 수도권 공급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의왕 청계2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 공급지로 지정했다. 백운호수, 청계산, 학의천 등을 연계한 물길이 흐르는 친환경 정주공간으로써 일자리,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스마트지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부지와 물량은 26만5000㎡에 2560가구 수준이다.

한 지역 주민은 “산과 하천을 끼고 지하철역이 있는 아파트는 흔치 않다”며 “향후 백운밸리, 롯데쇼핑몰, 포센푸입주, 인덕원개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등 호재가 많아 잠재력이 높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만 남았다... 투자자 눈길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지로 선정된 후 의왕 청계2 일대의 집값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를 보면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2단지)’은 지난

달 전용 84.89㎡가 6억5000만원(5층)에 매매됐다. 같은 평형이 8월엔 6억1500만원(6층), 9월엔 6억2500만원(4층)에 거래됐다가 9·21 대책으로 신규택지 공급지에 포함된 이후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다.

포일동 ‘두산위브호수마을2단지’도 80.174㎡이 지난달 5억8500만원(12층)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엔 5억5000만원(16층), 9월엔 5억6000만원(17층)에 거래됐다.

‘포일숲속마을3단지’도 84.9㎡의 경우 8월엔 6억5000만~7억2500만원, 9월엔 6억9350만~7억2900만원에 거래되다가 10월엔 8억원(4·6층)까지 매매가가 올랐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의왕 청계2 일대는 산, 하천 등으로 환경이 쾌적해 자녀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는다”며 “최근에는 (신규택지 공급지로 지정되면서) 투자 목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왕 청계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며 “의왕청계역이 개통되고 건너편 청계2지구가 역세권개발과 함께 빠르게 진행된다면 지금 아파트 가격보다 최소 2억원 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고 봤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소상공인聯, ‘KT 화재’ 관련 피해접수 200건 ‘홀쩍’

총 피해금액만 6억~7억원 가량 추산 피해접수 후 집단 소송 등 공동 대응

서울 서대문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불편이 열흘 가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근지역 음식점, 옷가게, 슈퍼, PC방 등에 대해 직접 받은 피해접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상인들이 자체 추산해 제출한 피해금액도 업소별로 적게는 200만~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200여 건의 피해 총 금액만 6억~7억원 가량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부터 5호선 중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센터’를 설치해 놓고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신고서에는 업체명, 업종·업체 등과 합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역 인근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 피해 유형(피해기간, 식자재, 예약, 영업피해 등), 영업손실 등 추정 피해금액, 건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도록했다.

특히 연합회는 피해접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집단 소송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지난달 30일 천막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T가 책임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명확한 복구 일정 제시 ▲우선 카드 단

말기 임시 사용 등 보완 대책 마련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상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통신난으로 인근 지역 상인들이 입은 직접적 피해는 카드단말기 불통으로 인한 고객 이탈과 전화 주문을 받지 못한 매출 하락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화가 불통돼 주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착신 등을 이용해 대응했지만 아마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눈에 띄는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까지 일부는 복구가 되질 않아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롯데렌터카 제주오토하우스서 ‘프리미엄 데스크’ 운영. /연합뉴스

롯데렌터카 제주서 럭셔리 세단 이용객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 운영

롯데렌터카가 중대형 럭셔리 세단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렌터카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주오토하우스에서 운영한다.

3일 롯데렌터카에 따르면 럭셔리 세단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는 전용 창구인 ‘프리미엄 데스크’ 및 별도 배차존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프리미엄 데스크 이용 고객은 제주오토하우스 내 마련된 별도 창구에서 대기 순번을 기다릴 필요 없이 렌터카 차량의 대여 및 반납을 진행하며, 전용 존에서 차량을 배차 받는다. 서비스 적용 차종은 제네시스 G70, G80, EQ900, 기아차 K9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오토하우스의 럭셔리 세단 전용 프리미엄 서비스는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주말 및 성수기 시즌의 여행객이나 뽀빠이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직장인 등 다양한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롯데렌터카는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행 중 즐길 수 있는 식음료가 포함된 웰컴 패키지를 제공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제주도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렌터카는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제네시스 및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와 함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카텔(렌터카+숙박) 패키지 ‘다이내믹 G’를 론칭했다. /양성문 기자 ysw@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되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한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상용직이 줄어 들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최충한양대 경제학부 부교수, 최광성 한양대 응용경제학과 박사과정, 이지은 한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 복지, 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가 확대되

는 문제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0~2015년간 상용직·임시직 고용 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2015년 기준)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회원국의 상용직 비중은 74.0%에서 73.6%, 임시직은 10.6%에 11.5%, 자영업 15.4%에서 14.9%로 증가 또는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50.0%에서 57.5%, 임시직은 17.0%에서 16.5%, 자영업은 33.1%에서 26.0%로 오르거나 내렸다.

피고용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6만

7000달러로 OECD 29개국 중 19위로 중하위권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고용 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면 OECD 29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3~0.5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반대로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고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은 0.22~0.64%포인트 줄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임시직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 효과보다는 상용직 근로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며 “임시직 근로자보다 상용직 근로자의 노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직 근로자 비중의 증가 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 기자 hj89@

일본의 최종병기 '5G'... 방아쇠 당긴다

2020년 올림픽을 '터닝 포인트'로... IT강국 반열에

<도쿄>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5G)시대가 열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1일부터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했다.

5G 서비스는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절반의 시작이지만 새로운 통신의 시대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5G 단말기가 나오면 일반 소비자들도 5G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신문은 앞으로 열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와 경쟁을 하게 될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이 5G 서비스를 어떻게 준비 중인지 점검한다. (편집자 주)

세계 각국 5G 점검

① 조용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본

2020년 7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제32회 하계올림픽'이 열린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5G 시대와 연결시킨다.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행사는 개최국의 첨단 기술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5G를 통해 새롭게 준비한 올림픽 중계 방식을 세계로 송출하면서 자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임을 선언한다는 전략이다.

5G서비스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느리게 움직이는 듯 보지만 정부, 업체 등은 서로 손발을 맞추며 차분하게 5G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측면에선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日 정부, 5G서비스 지원 정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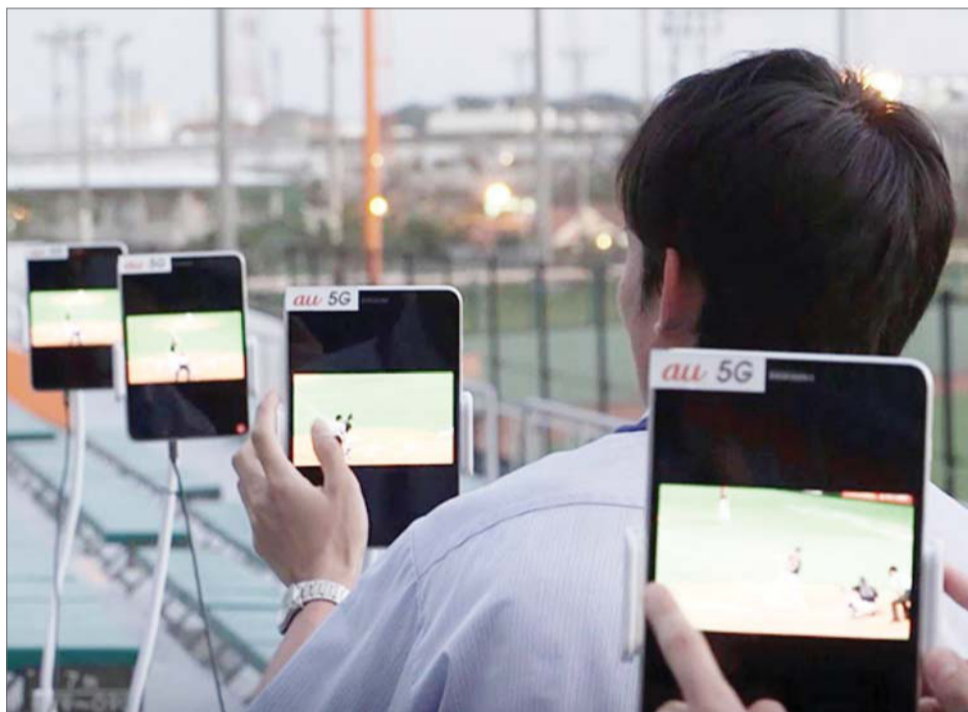
일본 총무성은 사물인터넷(IoT), 원격의료 등 5G 기술로 인한 혁신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지방의 일손부족 등 일본 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정책 개선에 적극적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1월 9일 '주파수 재편 행동 계획'을 총무대신의 자문기관 전파감리심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휴대 전화용 주파수를 현재 900MHz에서 5G가 상용화되는 2020년 2500MHz로 약 3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역폭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 등에서 5G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총무성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자율주행, 드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도 대응하고 있다. 우선 자율주행을 위한 하이패스(ETC)용 주파수 대역 등을 내년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또 드론에 휴대전화를 탑재해 조난자 수색,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 경기장 주변에서 5G 통신망 사용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인근 지역의 무선랜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전파를 배분할 방침이다.

또한 총무성은 5G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에 대비해 5G 전파 설비를 같은 대역의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사업자간 협의 없이 실시간으로 유휴 전파자원을 찾아 공용으로 돌림으로써 품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5G 수요 조사를 감안해 올해 안에 주파수 할



<일본 사업자별 서비스 오픈 시기와 주요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시작	주요 서비스	기타
NTT도코모	2019년 9월	럭비월드컵	5G 오픈라보 운영
KDDI	2019년 중	영상 전송 서비스등	KDDI 디지털 게이트운영
소프트뱅크	2019년 중	VR활용 스포츠 행사	디디추싱 제휴
라쿠텐	2020년	스마트 경기장	IoT 분야 주력

스마트폰 주파수 現 3배인 2500MHz로 드론에 폰 탑재 등 산업활용으로 확대

이동3사 5G 경쟁 치열... 내년 서비스 제4이동사도 IoT기반 5G서비스 추진

360도 4K영상 전송에 실시간 VR 등 영상 가공해 생생한 경기장 정보 제공 이동사, 파트너사와 협업 등 5G 고도화

당하고, 내년에 통신 업체들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 서비스, 내년으로 앞당겨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사업자들이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당초 계획인 2020년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NTT도코모는 2019년 9월 럭비월드컵에서 5G 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5G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KDDI는내년 중 5G 활용한 영상 전송, 드론 경비 등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소프트뱅크는 내년 5G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삼고, 내년 여름 VR을 활용한 스포츠 행사를 준비중이다. 제4이동사 설립을 추진중인 라쿠텐도 2020년에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중심으로 5G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상으로 확실한 5G 고객경험 유도

특히 일본 업체들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5G를 활용해 관련된 영상 기술 개발에 주력하

고 있다. KDDI는 '자유시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여러 대의 카메라의 영상을 추출, 경기장과 선수 정보를 3D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해서 시청자들이 다양한 시점에서 스포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KDDI는 올해 6월 카메라 16대로 야구장에서 타자의 영상을 찍어 관람객석으로 전송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라쿠텐은 지난달 15일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 경기장'을 선보였다. 스포츠 경기장에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해 이벤트에 활용하기도 했고, 자동배송 카트를 통해 경기장 내 고객에서 물건을 배송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10월 광학기기 기업인 리코와 360도 4K 영상을 5G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유튜브에서 가상현실(VR)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험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NTT도코모도 5G 통신 기술을 활용해 8K 해상도 가상현실 콘텐츠를 실시간 중계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방송사인 NHK도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자동 해설 방송 서비스'를 개발, 도쿄 올림픽 이전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경기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나운서의 중계내용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공해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5G장점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

도쿄 올림픽을 위한 5G 서비스 이외에도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NTT도코모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파트너사들에 5G 시험장인 '5G 오픈라보'를 지난 4월 마련했다.

KDDI가 지난 9월 'KDDI 디지털 게이트'를 도쿄에 마련했다. 파트너사와 5G/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곳이다. KDDI는 또 지난달 초 일본항공과 5G 스마트폰을 활용한 탑승 서비스 효율화 등을 테스트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8월 중국의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에 나섰다. 향후 5G망을 활용해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시드원 원철민·김규태 매널리스트

crwon@seedone.co.kr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길을 걸으며 희망의 끈 놓지 말아야” 올레길, 세계를 ‘평화반지’로 묶다



희망 2019

① 서명숙의 올레길

하나 둘 포기해온 새해 계획에 얼굴이 빨개지는 연말이 왔다. 그 많던 계획을 세운 건 남들의 시선인지, 아니면 진짜로 되고 싶은 미래의 나였는지 여전히 헷갈린다.

이 어려운 질문에 온몸으로 대답해온 사람들이 있다. 길과 길을 잇거나 계란으로 바위를 깨거나, 성공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은 반항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걷든 뛰든, 너 자신을 믿어라.’ (편집자주)

사람의 욕망을 반지에 비유한 소설 ‘반지의 제왕’은 우리 마음 속에 열한 번째 손가락이 있다고 암시한다. 누구나 세상의 영욕을 다스릴 반지, 그 모든 욕심을 채워줄 유일 반지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지를 내려놓고 세상이란 손가락에 둥근 길을 끼워주는 이도 있다. 지난달 10일 인사동 찾집에서 만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싫증도 잘 내고 겁도 많지만, 하고 싶은 일에는 무모하게 담빈다. 너무 하고 싶어서 올레길을 냈다”고 말했다. 초록 두건과 상의를 입은 그의 옆에는 몸의 절반에 달하는 배낭이 부풀어 있었다. 숲 속 요정의 옷을 입고 절대반지를 없애려 길을 떠난 호빗, 겁 많고 용감한 프로도의 모습이 었다.

◆영초언니 따라 나선 ‘반지 원정대’

서 이사장이 제주올레라는 ‘큰 반지’를 만든 배경엔 참혹하게 아름다운 20대 시절이 있다. 제주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1976년 고려대에 입학한 명숙은 ‘고대신문’ 기자 생활로 독재시대를 절감했다. 입법반지·사법반지·행정반지를 지배하는 절대반지의 주인 사우론. 사람들은 그를 박정희라고 불렀다. 학창 시절 배운 ‘한국식 민주주의’의 실체를 알게 될 무렵, 졸업한 신문사 선배 천영초를 만났다. “영초언니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혜롭고 집요하고 다정했지요. 민주화운동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걸 인정하는 분이였죠.”

이후 수유리에서 영초언니와 자취한 시절엔 여성이 학생운동의 조연에 머물던 고대에서 큰 위로가 됐다. 고대 여학생 10명이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 ‘가라 열(열 사람이 여성해방·독재타도·노동자 해방의 길로 간다는 뜻)’을 만들고, 구속된 학생들에게 내복을 전달했다. 이들 중 한 명인 생물학과 선배 이해자가 학생들을 이끌고 학교 정문 옆 경찰가건물을 부수며 야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명숙은 밤새 시위 축구 유인물을 찍어 이웃 대학들에 배포했다. 같은 뜻, 저마다의 방식으로 절대반지를 파괴하려는 ‘반지 원정대’였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해자 언니의 구속 이후 모임은 시들해졌고, 명숙은 어머니의 부르튼 손을 보며 “비겁해지기로” 했다. 영초언니는 고개를 킁덕이며 명숙을 보내줬다. 그는 프로도의 선택을 존중하고 함께 걸어준 마법사 같달프었다.

안도감은 잠시. 명숙은 영초언니 자취방에서 만든 유인물이 발각돼 모진 고문을 받다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영초언니는 독방에 끌려갔다. 1979년 4월이었다.

그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명숙은 236일만에 석방돼 고향 서귀포로 돌아왔다. 절대 사우론이 법의 심판 없이 허망하게 쓰러진 직후였다. 하지만 고향에서 명숙을 기다린 건 빛보다 빠른 소문과 잔인한 시선들이었다. 그는 훗날 올레 7코스가 된 외돌개 주변 숲을 지나 폭풍의 언덕(서 이사장이 너려바위에 붙인 별명)에 앉았다. 바다를 타고 삭풍이 불어왔다. “그때는 걷는 즐거움을 몰랐어요. 다만 누군가의 관심이나 천 마디 말보다는 ‘말 없는 자연의 응시’가 가슴을 쓸어주었고 위로하는구나... 올레의 씨앗은 이때 싹을 틔웠지요.”

르는 걸 아는 듯 지시해야 했던 황우석 사태 때 절망했습니다. 이미 기자생활에 대해 고민하던 때여서 절대반지를 던지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활가분했죠.” 2006년 7월 사직서를 던진 그는 치유를 위해 스페인 산티아고 800km 순례길에 오른다.

잊혀진 올레의 뿌리가 마음 속 지층을 뚫고 나온 계기는, 그곳에서 만난 영국인 활동가의 신랄한 비판이었다. ‘24시간 미친듯이 일하고 마시며 질주하는 한국인에게는 걷기를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순례길을 걸으며 ‘제주도에 이런 길이 있다면 산티아고 못지

위에 집과 사람과 자연이 연결된 올레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2박 3일 관광지였던 제주도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달 살이 여행지가 됐다. 일본과 몽골에 수출된 올레는 내년 베트남 진출도 앞두고 있다.

서 이사장이 염원하는 세계 평화의 길, ‘피스 올레(Peace Olle)’를 향한 여정도 시작했다. 그는 지난 9월 산티아고에서 열린 월드 트레일즈 네트워크(World Trails Network) 컨퍼런스에서 국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피스 올레를 제안했다. 서 이사장이 하루 빨리 내고 싶은 길은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 강

◆결국 돌아오는 행복, ‘살았지만 살아진다’

올레 생각에 한껏 부푼 그의 표정을 바꾸고 싶다면 ‘어느 코스가 제일 좋으냐’고 물으면 된다. 길도 사람처럼 살아 있기 때문이다. 햇볕의 강도와 날씨, 마주친 사람에 따라 그날의 풍경은 달라진다. 인생도 그렇다. “꽃길만 걸으라는 사람의 꿈과 애뜻한 의도는 좋지만, 인생에는 영원한 갈매기 고개도 꽃길도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레의 풍경이 기대와 달리 실망하던 사람들이고 생끝에 ‘짠’ 하고 나타나는 예쁜 바닷길을 보고 놀라요. 꽃길만 걸으면 아름다움과 감사함을 인식하는 데 둔해져요. 과거 올레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소 나를 한껏 치켜세우던 세상의 손가락질에 절망해 자살충동을 느낀 적도 있어요. 입장료를 받거나 세금을 쓰지도 않았는데, 길을 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준 일이 폄하돼 괴로웠어요.”

가장 따뜻한 손을 내민 사람은 제주올레를 반대했던 해녀 할머니였다. “뉘이 나가 두문불출하다가 바닷가에 잡시 나갔어요. 그 분이 아무말 않고 딱 한 마디 하더군요. ‘살았지만 살아진다.’ 계속 살면 살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 고비 넘기면 별들 날 온다는 말씀이죠. 산전수전 공중전 백병전 다 겪은 분이 온 생애를 담아 해 준 말씀이예요.” 지난 8월 기준 구직 포기가 182만 4000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서 이사장이 청년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제주올레는 도시 청년 세 명을 초청해 10월부터 4달간 제주에서 머물게 하는 ‘청(靑)정(停)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길을 걸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돌과구를 찾아보라는 의도다.

서 이사장의 초대장에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청소년들도 적혀있다. ‘문제아’로 낙인찍힌 아이들과 2000km를 걸으며 사회의 문턱을 넘도록 돕는 프랑스 사회단체 ‘쇠이유(Seuil·문턱)’가 모델이다. “작년부터 법무부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징벌로는 청소년 범죄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자기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하는데, 자연만큼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건 없어요.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자극에 노출돼 있고, 비좁은 공간에서 경쟁에 내몰리죠. 여기서 탈락한 애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쇠이유도 현지에서 어떤 교정시설에 가봤을 때보다도 재범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소수의 학생부터라도 선생님이나 공직자 출신 자원 봉사자, 길 위의 선생님과 대자연에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이법종 기자 jiker@metroseoul.co.kr

박정희 정권, 참혹하게 아름다운 20대
전두환 군부독재는 ‘두번째 암흑의 탑’
가시밭길 걸어 예쁜 바닷길만 봐도 행복
도시·교정시설 청소년들에게도 희망을



제주올레는 해외 도보여행 단체와 손 잡고 한 코스 또는 한 구간을 ‘우정의 길’로 지정해 공동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그리스,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스위스, 레바논 소재 유명 도보 여행지 9곳이 올레길과 우정을 맺었다. 오른쪽 사진은 제주올레 6코스 우정의 길인 스위스 체르마트 5개 호수길. /제주올레



◆‘내 안의 절대반지’ 버리니, 올레가 찾아왔다

박정희 정부는 사라졌지만, 군부독재라는 절대반지는 전두환의 욕망을 자극했다. 결국 두 번째 암흑의 탑이 세워졌고, 시간은 1987년 6월을 피해가지 못했다. 결국 반지는 두 개의 탑과 함께 파괴됐다. 2년 뒤 ‘시사저널’ 경력기자가 된 명숙은 정치부에서 전쟁같은 취재를 이어갔다.

어느새 서명숙 기자의 마음 속에선 또 다른 절대반지가 욕망을 속삭였다. 특종과 더 높은 지위, 영향력이었다. “남이 못 쓴 기사와 탐사보도, 새로운 시각의 칼럼을 위해 23년을 달렸어요. 수많은 소송과 함께 피로감도 쌓였죠. 특히 모

얇게 아름다운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 살 때 외면했던 제주의 돌담과 유채꽃이 떠올랐죠. 주차장과 입장권으로 나뉘어진 제주 명소를 길로 연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삶과 정서, 역사가 숨쉬는 길을 볼 수 있을텐데. 그런데 그 여자가 ‘내가 길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그 지점’을 탁 건너려했지요. 민주화 운동 때 영초언니가 하나의 시선을 더해줬듯이.”

이후 동생과 시사저널(現 시사IN) 후배들이 길을 내는데 힘입어, 2007년 9월 서귀포 시흥리에 첫 올레길을 냈다. 손수 돌을 고르고 나무에 끈을 묶어 방향을 알렸다. 5년 반 만에 제주 해안을 한 바퀴 도는 425km 26코스가 완성됐다. 길

제 징집됐다가 제주도에 정착하신 아버지의 고향, 함경북도 무산행 올레다. “산티아고에서 가장 충격적인 기억은, 프랑스 국경인 생 장피드포르 마을에서 두 발로 스페인에 걸어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의 땅도 못 가봤는데’ 하는 생각에 울컥했죠. 지프차 운전기사였던 아버지는 생전에 통일이 되면 우리를 그 차에 태워 무산까지 가겠다고 말씀하곤 하셨어요. 이번 홍보대사직을 수락하면서 이사회에 ‘올레를 전세계 사업으로 가져가자’고 제안해 채택됐습니다. 길 없는 곳을 잇고 분쟁지역 간 소통의 길을 뚫자고. 특히 일본 규슈와 미야기 올레는 한일 민간외교의 무대라고 볼 수 있죠.”

文, 트럼프 메시지 공개 “김정은 바라는 바 이뤄줄 것”

文 대통령, 뉴질랜드行 전용기서 공개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 있어
답방, 비핵화에 긍정적인 모멘텀
연내 답방여부 김정은 결단에 달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만큼 김 위원장과 함께 남은 (비핵화 등) 합의를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면서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해달라고 한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그냥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간 비핵화 대화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북미간 2차 정상회담이나 이를 위한 전초적 성격인 고위급회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말끔히 사라졌다”고 소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는 문제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면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 알수는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에 대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엄청난 역사적 큰 사변이듯 북한 지도자가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적은 있지만 서울을 방문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등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본

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등 국론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것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고, 남북 간에 평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다. 모든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경호 등을 위해 초래될 불편에 대해선 국민들께 양해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이 경호라든지 안전 문제가 아닐까 한다”면서 “우리가 철저히 보장해야하고 경호나 안전 보장시 교통 등 국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양해해 주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월께로 적시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보다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야한다는 것에는 한미

정상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합의에선 북한 비핵화,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 청산, 북한 안전 보장 등을 북미가 합의했다”면서 “각각 조치들이 선후적으로 어떻게 배치돼 나갈 것인지 타임테이블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결정돼야하는데 싱가포르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만 했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조금더 큰 타임테이블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미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기내에서 40분 가량 간담회를 하면서 경제 등 각종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하지 않았다.

모두 발언에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한 기자가 “소프트하게 여쭙겠다”며 “정부 3년차에 꼭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자 “더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판·검사 ‘성비위·음주운전’에도 경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외부인사 도입 시급

(법관징계위)

성매매·지하철 몰카 등 ‘감봉’ 처분
뇌물 등 수수 땀 정직 등 징계 무거워

판·검사가 성비위·음주운전을 저질러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사법·수사기관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3년 1월~2018년 10월 법관 징계는 13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 문제 관련 징계는 성매매를 포함해 4건이었다. 이에 대한 처분은 감봉 3건에 정직 1건이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심도 부장판사는 2016년 10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매매)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분석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심 부장판사는 같은해 8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고도 감봉 처분에 그쳤다.

서울동부지법 홍도 판사는 지난해 7월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했다. 그에 대한 처분은 감봉 4개월이었다.

서울북부지법 김도 판사는 지난해 6월 회식 자리에서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회식 이후 두 팔로 해당 검사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뉜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케 하는 처분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봉급의 1/3 이하를 줄인다. 정직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 기간 중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식구’로 구성되는 법관징계위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인 위원장, 위원 6명과 예비위원 4명을 둔다. 징계 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해 서면이나 구술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며 증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법원종합청사. /이범중 기자

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나 학식, 경험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보충진술과 증거제출도 할 수 있다.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헌법 106조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징계법에는 해임과 면직도 징계에 포함돼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다.

검찰은 전반적으로 법원보다 징계 수위가 높았지만, 감봉과 정직에 그친 처분도 많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2018년 8월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는 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견책은 3건, 감봉이 3건, 면직 3건, 정직 1건, 해임 1건이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과 견책이 성추행에 따른 징계 중 절반을 차지한다.

다만 뇌물수수 and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는 법원에 비해 무거웠다. 2013년 서울고검과 목포지청에서 벌어진 뇌물수수 2건에는 예외없이 해임 처분이 결정됐다. 관보에 따르면, 목포지청 전모 검사는 2012년 11월께 자신이 수사중인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뇌물수수)해 이듬해 2월 해임됐다. 같은날 해임된 서울고검 김도 검사는 2008년부터 수차례 뇌물로 8억 8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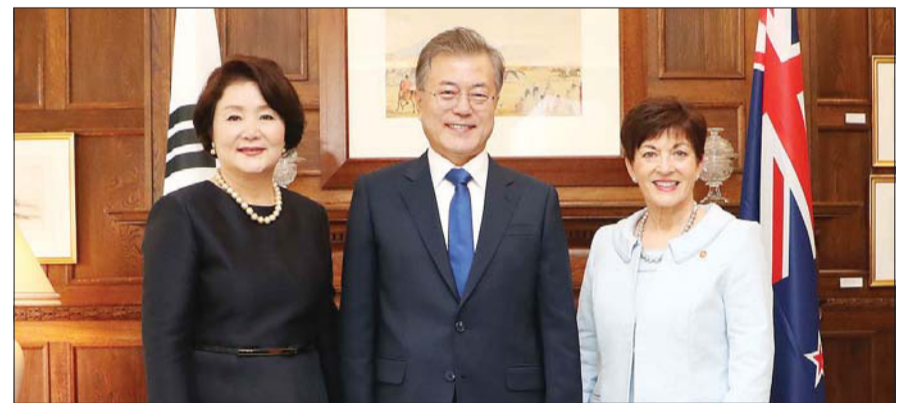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 역시 9년 중 절반이 해임(3건)과 면직(2건)이었다. 이 밖에 정직(6개월) 2건, 감봉(3개월) 1건, 견책 1건이었다.

반면 법관의 금품수수에는 정직 1년 처분이 내려졌다.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레이저로버 차량 1대와 취득세와 보험료를 포함해 1억5624만 4300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3124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받은 뒤 상고했다가 지난 5월 취하였다.

◆ 판검사 징계위 ‘진짜 외부인사’ 필요

윤창호법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판검사 모두 약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7건의 징계 중 5건이 감봉(1개월 3건, 2~3개월 각 1건)이었다. 나머지는 견책과 정직 1개월이었다. 법관의 뺑소니도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법관·검사 징계위원회 구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추천을 받은 재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나 한국법학교수회 추천 교수 등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제3의 단체에서 판검사 징계위 외부인사로 들어가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범중 기자 jaker@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 총독 관저에서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환담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서 진정어린 존중·배려 배워”

文 대통령, 뉴질랜드 국빈방문

“누구도 배제 없는 ‘포용국가’ 비전
양국 함께 포용정신 가꾸길 바래”

뉴질랜드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오리 부족 속담을 인용하며 ‘사람이 먼저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클랜드의 총독 관저에서 팻시 레디 뉴질랜드 총독과 오찬을 하며 오찬사를 통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사람, 사람”이라는 마오리 부족 속담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나도 오래전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는데,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나라가 뉴질랜드로 뉴질랜드 여성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행복하고 조화롭게 사회를 이끌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원주민과 서로를 포용해 사회통합도 이루었다. 진정 어린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배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도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삼아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며 “뉴질랜드와 한국의 아름다운 우정으로 양국이 함께 포용 정신을 가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은 2014년 새해를 맞아 ‘오지 트레킹’을 하기위해 들렀을 때 이어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때를 떠올리면서 “4년 전 우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는데 아름다운 자연과 삶을 다시 만나게 돼 아주 반갑고 기쁘다”고 전했다.

레디 총독은 “양국은 활발한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함께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오늘날 한국과 같은 핵심파트너와 공통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레디 총독은 특히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기울이고 계신 노력을 평가한다”며 “아직 긴 여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좋은 출발을 이루셨다”고 말했다.

오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총독 관저 내 소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관저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영접을 나온 그레고리 보른 뉴질랜드 총독 비서관과 악수하며 코를 부드럽게 맞대는 마오리 전통방식인 ‘훙이’로 인사했다. ‘훙이’는 주최 측 인사와 손님이 영혼을 교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 복장을 한 마오리족이 창을 휘두르며 환영 인사를 하자 문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를 바라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입장해 방명록에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정이 깊고 흰 구름처럼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김승호 기자

고교 서열화 완화는 말뿐... 교육부의 '언행불일치' 명문고에 집착하는 공무원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1/3 불과 공무원 자녀 상당수 타지역 재학 타지역 절반은 자사고 등 명문고 혁신학교 재학 자녀는 단 1명뿐

〈교육부 공무원 자녀, 세종시 외 입시명문고 진학현황〉

고교 유형(인원)	학교명
자율형 사립고 (6명)	중앙고(1)·현대고(1)·휘문고(1)·보인고(1)·한양사대부고(1)·상산고(1)
강남3구 일반고(8명)	단대부고(2)·청담고(1)·상문고(1)·반포고(1)·배명고(1)·보성고(1)·방산고(1)
강남3구의 일반고(3명)	진명여고(1)·한영고(1)·신도립고(1)
전국단위 자율학교(3명)	공주한일고(2)·공주사대부고(1)
외국인·국제학교(2명)	청라달튼외국인학교(1)·북경한국국제학교(1)

/자료=김혜영의원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속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강남 3구 소재 입시명문고 등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서열화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직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 현황'을 보면, 교육부 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입시명문고, 전국단위모집 유명 고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5년 전인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교육부 공무원 자녀 중 세종시 소재 고교에 진학한 비율은 전체 64명 중 3분의 1 수준인 22명에 그쳤다.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생 22명 중 20명은 일반고에 진학했지만, 2명(세종국제고 1명, 세종예술고 1명)은 특수목적고에 재학 중이다.

세종시 이외의 소재 고교에 다니는 42명 중 절반이 넘는 22명은 대입 실적이 좋은 입시 명문고에 재학 중이다. 이 중 6명은 서울중앙고·현대고·휘문고·보인고·한양

사대부고(각 1명) 등 서울 소재 자사고와 전북 상산고(1명)에 재학 중이었다. 또 8명은 단대부고(2명), 청담고·상문고·반포고·배명고·보성고·방산고(각 1명) 등 강남 소재 유명 고교에 진학했다.

서울 소재 고교를 다니는 공무원 공무원 자녀 중 자사고나 강남 3구 이외의 고교에 다니는 경우는 진명여고(양천구), 한영고(강동구), 신도립고(구로구) 각 1명씩으로 모두 입시 명문고로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는 충남 공주한일고(2명), 공주 사대부고(1명) 등 충남의 대표적인 입시 명문 자유통고와 인천 소재 청라달튼외국인학교와 북경한국국제학교 재학생도 각각 1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혁신학교에 다니는 공무원 자녀는 서울 신현고 재학생 1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19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 자사고 등에서 지난 2월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오는 14일 공개변론이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 주소를 유지하면서 입시 명문고에 보내는 것은 고교 서열화 완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자녀들의 교우관계 등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다녔던 서울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세종시로 옮긴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서 세종시 소재 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국방부 페이스북은 "연필로 쓰세요~"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국방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보면, 가수 전영록의 히트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1983년)의 노랫말 "사랑을 할 때는 쓰다가 쓰다가 틀리면지 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 있으니까요"가 떠오른다.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논란이 일지 생각도 않고 포스팅을 했다가, 항상 뒤늦게 삭제해 하거나 수정을 하니까 말이다.

지난달 30일 기자는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휴전 65주년 포스팅 문구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국방부 페이스북을 찾아보고 기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3년여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된 지 올해 65주년입니다"라는 국방부 페이스북 내용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게 군 안팎의 반응이다.

이 문구를 접한 전·현직 군인들은 "완전한 통일과 완전한 승리가 아닌 반쪽짜리 휴전이라도 패자라는 말을 쓰게되면, 참전 유공자들과 유족의 마음은 어찌 되겠냐"며 거센 분노를 표출했다.

비교적 침착한 반응을 보인 한 군인도 "군인에 대한 존중을 중요시 했

던 노무현 정부와도 비교된다"면서 "북한의 남침을 국군과 U.N군이 격퇴한 의미마저도 퇴색되는 것 같다"며 씁쓸한 마음을 내비쳤다.

전사자에 대한 격하 표현은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취임 후 두 번째다. 취임 1년도 안된 상황에서 한 달 간격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국방부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한 언론사의 기사 하나를 외압을 통해 삭제했다. 제2차 연평해전 전사를 순직으로 표기한 국방부 페이스북을 지적한 내용이었다.

기사는 삭제됐지만,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 대변인실은 뒤늦게 순직을 전사로 바꿨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사 삭제 이유를 묻는 만원에 대해 거짓으로 답변했다.

다시 휴전 관련 포스팅으로 돌아가보자 기자는 제보를 받고 최 대변인과 이진우 부대변인에게 카톡으로 질의를 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해당 문구는 문화체육부 정책자문 기자단의 한 기자가 쓴 문구로 자체 검증은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휴전 65주년 관련 포스팅은 국방부 페이스북에서 내려졌다. 정말 국방부 페이스북은 연필 쓰고 지우며, 고민 많이 하고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 2곳 중 1곳 "글로벌 인재 채용할 것"

잡코리아, 139개 기업 설문

46% 1~5명 채용... 평균 4.5명 뽑아 채용 국가 中)美)日)베트남)유럽 順

국내 취업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약 7곳이 무역·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잡코리아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국내 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56.1%가 현재 무역 및 해외영업 관련 업무를 할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있었다. 반면 32.4%는 글로벌 인재 채용 계획이 없었고, 11.5%는 아직 채용계획이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채용 형태(복수

선택)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응답률이 87.2%로 가장 많았고, △해외 유학과 국내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37.2%였다.

글로벌 채용 인원은 한 기업당 평균 4.5명 정도였으며, 연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기업이 46.0%, △6~10명 13.7% △10~20명 10.8% 등의 수준이었다.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 때문이라는 응답이 52.1%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해외근무 가능(35.1%) △글로벌 감각(31.9%) △문화적 개방성(17.0%) △후향 해외시장 진출 대비(13.8%) △높은 전문지식(10.6%) △폭넓은 해외 인맥(4.3%) 등의 순이었다.

해외업무 담당 국가(복수 응답)로는 △중국 응답률 52.1%로 1위를 차지했

으며, 다음으로 △미국(30.9%) △일본(29.8%) △베트남(22.3%) △유럽 국가(13.8%)가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외에 △캐나다(9.6%) △필리핀(7.4%) △중동 국가(3.2%) △호주(3.2%) 등의 순이었다.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를 채용할 때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는 △'채용 분야의 역량을 갖춘 전공자가 부족하다'가 응답률 47.5%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지원자의 희망 연봉이 너무 높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41.7%로 비교적 높았다. 이외에 △입사 지원자가 부족하다(24.5%) △입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20.9%)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하다(10.8%)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도 있었다.

/한용수 기자

한성대 재학생들 DB 투자대회 '수익률 1위' 수상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DB금융투자 본사에서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품 500만원과 아시아 금융 중심지 탐방 기회가 제공된다.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생인 윤선우·유정현·이민영 씨는 DNA팀으로 대회에 출전해 투자계획서 제출(5월 말), 포트폴리오 운용(6월~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110개 대학 602개 팀 총 1806명이 참가했으며, 한성대 팀은 '상품의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투자 철학으로 5개월간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결과 최종 수익률 1.50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투자 수익률에만 집중했던 기존 대회와 달리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한성대 무역학과 재학생 3명이 지난달 24일 열린 '2018년 DB GAPS 투자대회' 시상식에서 수익률 우수부문 1위를 수상했다. /한성대학교

자산배분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주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성대 무역학과 4학년 윤선우 씨는 "이번 대회는 책으로만 보던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바른 투자 철학을 고민해 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 호남·영남 지역서 특강·입학설명회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8일과 9일 호남과 영남지역에서 각각 특강과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강과 입학설명회에서는 경희사이버대 각 분야 전문 교수진이 나와 특강하고, 2019학년도 예비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과 소개와 입시 정보 등을 소개한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된다.

8일 호남지역학습관에서 진행되는 특강에서는 조용대 교수(금융경제전공)가 '금융위기와 자산관리'를 주제로 특강하고, 9일 영남지역학습관 특강에서는 이정민 교수(도시계획부동산전공)가 '생애 전환기, 생활속의 부동산 경제 이해-주거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조용대 교수

이정민 교수

특강 이후 입학·학생처 이혜린 처장과 지역학생회 간담회가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 재능기부 공연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예술대 20주년 기념 무용 공연 열어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가 문화예술 재능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 3일 국민대에 따르면,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날 공연은 예술대학 20주년·무용전공 19주년을 맞아 교내 구성원들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향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



국민대 예술대학 무용전공 교수·학생들은 지난 11월 22일~23일까지 2일간 국민대 예술관 대극장에서 '2018 국민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민대

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세 장르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했다. /한용수 기자

말레이시아 골프 9일 145만원

쿠알라 인근 명문 골프장 2색 골프, 5성급 호텔

몬테레즈 CC+ 술탄(KG사스) CC
 불포함:미팅샌딩비 50\$

4성급 UPM 9일 13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겐팅아와나 6일 129만원 (1/26 출발)
 불포함:미팅샌딩비 50\$
몬테레즈 9일 139만원 (5성급 호텔)
 불포함:미팅샌딩비 50\$
겐팅 아와나 9일 159만원(해발 1100m)
 불포함:미팅샌딩비 50\$



'치앙마이'보다 시원한 '치앙라이' 5/6일 149만원~

대한항공 직항, 목출발 5일, 일출발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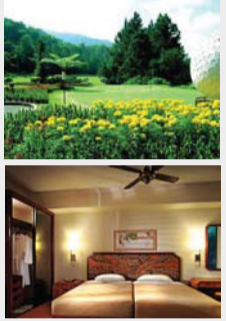
1월 10일 / 17일 (목요일) 출발
 1월 6일 / 13일 / 20일 (일요일) 출발 164만원
 불포함사항:캐디팁, 캐디피, 카트비, 공항-리조트송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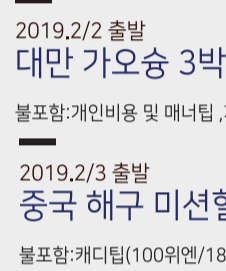
치앙마이 3박 5일 126만원~
 불포함:중식, 캐디팁, 기사&가이드경비



설 연휴 골프 한정 특가



2019.2/2 출발
겐팅아와나 5일 12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2019.2/1 출발
겐팅아와나 6일 14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글렌메리 5일 13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50\$



2019.2/2 출발
대만 가오슝 3박 4일 159만원
 불포함:개인비용 및 매너팁, 가이드&기사팁(50\$)
 2019.2/3 출발
중국 해구 미션힐 6일 219만원
 불포함:캐디팁(100위엔/18홀/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조호바루

10대명문골프장
쿠알라 글렌메리 6일 139만원 (해발 1100m 5성급 호텔)
 불포함:미팅샌딩비
1월 23일 출발
 겐팅아와나 9일 159만원 / 6일 135만원 / 15일 235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몬테레즈 9일 139만원 (실속가성비)
1월 07일 출발
 불포함:미팅샌딩비
 조호바루 폰데로사 5일 69만원 / 3색 골프 119만원
 불포함:미팅샌딩비

필리핀 클락/마닐라/세부

마닐라 바탕가스 명문 2색 4일 799,000원
 새릿포인트C.C / 말라랴CC, 목요일 / 금요일 출발
 불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클락 베버리 3박 5일 769,000원
 불포함사항:클럽중식 및 그늘집비용, 캐디팁, 카트비, 미팅/샌딩차량비, 클럽공항세
세부 인터네셔널 3박 5일 700,000원
 불포함사항:캐디, 카트, 공항왕복(미팅/샌딩차량비용), 현지공항세

태국 방콕 / 파타야

방콕 2색 골프 3박 5일 110만원
 아우타야+노던랑릿
 불포함사항: 캐디팁, 캐디팁, 중식
파타야 3색 골프 3박 5일 109만원
 시암 / 람차방 / 피닉스 CC
 불포함사항: 캐디팁, 캐디팁, 중식

라오스

부영CC 7일 139만원
 불포함사항:전통카드+캐디팁, 캐디팁, 공항-골프장 왕복 교통비 및 직원 봉사료
덴사반CC 9일 135만원 (5성급 호텔/식사)
 불포함사항:카트비, 캐디팁, 캐디팁, 미팅/샌딩비
3색 골프 5일 99만원 부영CC / 롱비엔CC / 라오CC / 레이크CC
 불포함사항: 개인경비, 매너팁, 캐디팁, 클럽중식

일본

고베 골프 특가 3일 699,000원
 12/13일 출발, 불포함: 중식
오키나와 3색 골프 4일 109만원
 오키나와CC / 오션캐슬CC / 슈레이CC
 불포함사항: 캐디팁,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미야자키 니치난 4일 54홀 949,000원
 토요일 출발
 불포함사항: 캐디팁,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아와지스프링스 3일 54홀 699,000원
 불포함사항: 캐디팁, 클럽중식, 석식, 클럽렌탈, 개인비용

장기골프특가

태국
카오야이시티 1일 8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아티타야 1일 10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베스트오션 1일 13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다이너스티 1일 12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라차캄 1일 140,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카오차녹 1일 95,000원
 포함: 그린피36홀, 숙박(2인1실), 조중석식
필리핀
메르세데스 1일 70,000원
 포함: 그린피18홀, 카트, 캐디, 숙박(2인1실), 조중석식
인터내셔널 1일 7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스플랜디도 1일 110,000원
 포함: 골프텔 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갈릴라얏 1일 90,000원
 포함: 숙박(2인1실), 식사(한식), 18홀 그린피, 차량, 기사/가이드

베트남 나트랑/다낭/호치민/하노이

나트랑 빈펄+다이아몬드CC 5일 129만원
 포함사항: 왕복 항공료&TAX, 리조트 숙박(2인1실), 식사(중/석식), 골프 그린피/캐디(전통카드, 여행자보험)
다낭 3색 골프 5일 149만원
 포함사항: 숙박비, 조식+석식(특상), 시푸드점, 분짜점식, OK 부페, 가이드, 그린피/캐디/카트, 차량, 호텔/부페, 다낭시, 관광권, 전산사자(90분), 전월정 1일 1명시원한 승수, 열대과일 제공
호치민 골프 5일 10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호텔 차량, 일일상포함된 기사 가이드, 골프-편54홀 그린피+캐디
하노이 스카이라이크+롱비엔 C.C 149만원
 포함사항: 항공 및 택시, 스카이라이크CC, 롱비엔CC-2색 그린피(일-금:27홀/토, 일:18홀)/전월정-숙박(조식)

대만 가오슝/타이페이

가오슝 VIP 3박4일 125만원
 불포함사항: 전통카드+캐디팁+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청주]타이페이(FE) VIP 3박 4일 850,000원
 불포함사항: 전통카드+캐디팁+캐디팁, 클럽 중식, 기사&가이드팁

괌/사이판

괌 스타츠 3박5일 145만원
 불포함사항: 캐디팁+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사이판 라오라오베이 3박 5일 149만원
 불포함사항: 캐디팁+캐디팁, 중석식, 기사&가이드팁

중국 광저우/하이난 평균 23도

광저우 남사 5일 119만원
/ 실버마운틴 9일 149만원
 불포함사항: 픽업비, 캐디팁, 비자비
하이난 미량만 5일 109만원~
/블루오션 6일 849,000원
 불포함사항: 미팅샌딩, 캐디팁,

IL Tour 02-541-4242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02-542-9822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golfcondo



한국/중국/일본/러시아 CRUISE



2019년 5월 호도 여행 예약
6일 1,880,000원~



4/26 인천 출항
한중일 전세 크루즈 6일
 인천항 상해 후쿠오카 부산항

5/1 부산 출항, 5/2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5/6일
 부산항 속초항 블라디보스톡 사카이 미나토 속초항

5/6 속초 출항
한러일 전세 크루즈 6일
 속초항 블라디보스톡 오타루 아오모리 부산항

코스타 세레나 호
 □ 11만 4천톤
 □ 전장 :290M
 □ 전폭 : 35M
 □ 수용인원 : 3,780명

조기 예약 특전
혜택 1 12/31까지 완납시 특별할인 혜택
혜택 2 상담후 3월 이내 예약금 입금시 3% 추가 할인
혜택 3 단체예약 할인 8명 3만원, 14명 5만원, 20명 10만원 추가 할인
혜택 4 3/4인실 이용자 3인제, 4인제 성인 80만원, 소아 30만원만 지불

롯데관광 크루즈 판매점
02-541-4242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 B/D 717호
 FAX: 02-542-9822
 홈페이지: <http://www.iltour.co.kr>
 블로그: <http://blog.naver.com/golfcondo>
 카카오톡 아이디: golfcondo

건강, 스트레스, 성인병에 필수 건강 파트너! 사우나는 집에서... SALE

캐나다산 적삼목으로 만든 핀란드 수출용 사우나, 국내 출시!

2-3인용

5-6인용

전원 주택, 아파트 거실, 기숙사, 연수원, 마을회관, 헬스클럽, 펜션

세포재생 및 열액순환 향상
인체항균작용 및 성인병 치료 효과
체중조절 효과 및 운동부족 해소 효과
영양분해 공급 및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
피로회복 및 스트레스 해소

원적외선 사우나
 캐나다산 적삼목 원적외선효과 자동온도조절 인체공학적인설계

24시간 상담
농막, 캠핑하우스 리치하우징 문의 : 1544-6299



하나금융, 장애작가와 '아름다운 그림여행' 전시회
 하나금융그룹은 3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신사옥 로비에서 2019년 하나금융그룹 캘린더 작품의 작가인 안윤모와 자폐성 장애작가 5인의 작품 전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아름다운 그림여행'이라는 테마로 12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자폐성 장애작가의 그림을 소재로 한 2019년 하나금융그룹의 캘린더 제작을 계기로 마련됐다.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왼쪽 세번째)이 안윤모 작가 및 자폐성 장애작가들과 희망의 메시지를 적은 희망 나비를 그룹의 미션인 '행복한 금융' 꽃 조형물에 부착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금융



KB증권 '사랑나눔 김장축제'로 이웃사랑 실천
 KB증권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문화 가정 및 결식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나눔 김장축제'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여의도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연말 사회공헌활동으로, KB증권 여직원회인 '여름림'의 주최로 진행됐다. 윤경은 사장(오른쪽 세번째) 사장을 비롯한 KB증권 임직원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김장김치를 버무리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롯데제과, 동반성장 가족의 날 행사
 롯데제과는 지난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동반성장 가족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동반성장 가족의 날'은 올해로 9회째 진행해 오는 행사로, 롯데제과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 인식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사의 임직원 및 가족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롯데제과

토요타코리아, 부품 10% 할인 혜택

겨울맞이 해피인터 서비스 캠페인 3주간 전국 공식서비스센터서 진행

토요타코리아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 전국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18 토요타 해피 인터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중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 입고 고객에게는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와 12V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와이퍼 러버와 블레이드, 0W-40 엔진오일에 대해 10%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타이어 점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한 타이어 안심보장 서비스도 더 연장된 조건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타이어 안심보장 서비스란 토요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구매 시(단, 2개 이상 구매, 브리지스톤 및 미쉐린 타이어에 한함) 6개월 또는 1만km 이내의 주행 동안 타이어에 손상이 발생 할 경우(고객 과실 포함) 무상으로 타이어를 교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매 시 1년 또는 2만km까지 연장된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올리브영, NCSI H&B부문 2년 연속 1위

H&B(헬스앤뷰티)스토어 올리브영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18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헬스앤뷰티전문점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NCSI(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국가고객만족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다. 고객의 기대 수준, 인지 품질, 인지 가치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도가 높다. 올리브영은 이번 조사에서 ▲고객 인지 가치 ▲고객 인지 품질 ▲고객 유지율



올리브영 매장. /CJ올리브네트웍스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종합 고객만족도 점수 77점을 받았다. 도소매 서비스업 평균인 76.8점보다 높은 점수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배달앱



이상현의 칼럼

서비스테크놀로지라는 유통의 한 형태로 이미 자영업시장에선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 택시앱에서는 카카오택시, 숙박앱과 부동산앱에서는 여기어때와 직박이 각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열된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우리 생활에 있어 상당한 편의성을 안겨주고, 이미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외식업관련 O2O서비스인 배달웹시장은 2013년 87만명의 사용자가 3647억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1046만명이 1조5000억원의 구매력을 보였다. 2017년에는 그 증가속도가 크게 늘어 2500만명이 약 3조의 매

출을 기록했다.

O2O란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하는 사업형태를 의미하는 말이며, 최근에는 주로 전자상거래 혹은 마케팅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현상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한 O2O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전체 업종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의 구매수단의 변화가 급격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배달시장으로의 이동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의 마케팅도 관련 업종으로 마케팅이나 홍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럼 소비자들의 웹을 통한 구매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배달웹을 활용한 구매형태의 증가 이유는 경기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 베이비세대의 은퇴, 나홀로 1인세대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 등 인구밀도의 변화와 야식문화의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소비성향의 변화가 어쩔 수 없는 영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순응이 배달웹이라는 거대한 공동 마케팅에 종속되는 현상에 자영업시장이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전체 배달웹 업체 중 매출 51%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유료광고업체수가 4만8710점으로 전국의 배달관련 업체수 약 25~30만 업체 중 15~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의 민족의 경우 외부결제수수료 3.3%와 광고비용 월 8만원을 받고 있고, 요기요의 경우 중계수수료 12.5%와 외부결제수수료 3.96% 등 총 16.46%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며, 배달통의 경우 중계수수료 2.75%와 외부결제수수료 3.85% 등 총 6.6%를 징수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과 수익성 감소는 심각한 함을 지니서 절벽이라 할 만한 실적이다. 자영업시장의 계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합리적 지원방향과 운영대책을 수립해주길 희망한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KB국민은행 지역아동센터 158곳에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취약 소외 아동위해 전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국 158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환경부, 환경재단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내점고객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관련 환경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공기청정기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될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이 진행된 역곡 지역아동



박상용 KB국민은행 사회협력부장(왼쪽)이 지난달 30일 미세먼지에 취약한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해 전국 158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박은희 역곡지역아동센터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센터는 KB국민은행이 23번째로 '학습공간'을 지원한 지역아동센터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개 지역아동센터 내 유희공간 및 주방공간 등

을 분리해 아이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인사

- ◆GC-GC녹십자 그룹 ◇GC △전무 박순영 ◇ GC 녹십자 △상무 오영훈 유현아 강성연 ◇GC녹십자 엠에스 △상무 김유신 ◇GC녹십자랩셀 △사장 박대우 △전무 황영경 △상무 조성우 ◇GC녹십자웰빙 △전무 김상현 ◇GC녹십자헬스케어 △부사장 전도규 ◇GC녹십자이엠 △상무 김대인 ◇GC녹십자아이메드 △전무 우병호
- ◆Sh수협은행 ◇ 집행부행장(임원) △개인그룹 부행장 박석주 △기업그룹 부행장 김진균 △여신지원 그룹 부행장 김철환 △IT그룹 부행장 신원선
- ◆메리츠화재 ◇ 임원 신규선임 △상무보 장흥기 ◇ 임원 전보 △마케팅지원부문장 전무 윤종섭 △기업영역2본부장 상무 이필수 △기업영역대리점본부장 상무보 장홍기 △기업영역1본부장 상무보 최학용 △상해BIZ본부장 본부장 이종호 ◇부사장 전보 △기업영역1부장 변종민 △기업영역2부장 김정후 △기업영역3부장 신영철 △대리점영역부장 김홍석 △대구역영역부장 남동균 △부산영역부장 이호중 △상해영역부장 이상준 △SOC영역부장 송윤서 △정책보험부장 김동홍 △직할영역부장 김정진 △협회단체영역부장 박경록 △SIU센터장 김경태 △경남대물보상센터장 문홍기 △경남대인보상센터장 김용배 △남부대물보상센터장 이종복 △남부대인보상센터장 이창희 △대구대인보상센터장 안중욱 △보상콜센터장 이호근 △부산대인보상센터장 이승훈 △수입차보상센터장 배기환 △수입차보상2

- 센터장 김일현 △서부대물보상센터장 정기돌 △서부대인보상센터장 이국진 △스피드대물보상4센터장 신용규 △스피드대인보상센터장 이용승 △중앙대물보상센터장 박진우 △중성전담보상센터장 강일 △충청대물보상센터장 손대수 △특수대물보상센터장 이선형 △호남대물보상센터장 이병철 △호남대인보상센터장 김영형
 - ◆한화투자증권 ◇ 사업부장·실장 전보 △DCM사업부장 박희범 △Global Digital Product실장 김동욱 △Project금융사업부장 신훈식 △WM지원실장 김동우 △기업금융사업부장 류창우 △리서치센터장 박영훈 △투자상품사업부장 지성구 △권역장 전보 △강남권역장 손준권 △강북권역장 김민수 △경북권역장 신홍섭 △팀장 전보 △DCM1팀장 이재상 △DCM2팀장 노성호 △GDP전략팀장 정준 △PF팀장 유재석 △Trading기획팀장 김종문 △WM추진팀장 성기승 △구조화1팀장 이원익 △구조화2팀장 김태우 △글로벌사업팀장 이준혁 △글로벌상품팀장 김우석 △기업분석팀장 이봉진 △디지털마케팅팀장 이대일 △디지털솔루션팀장 이정우 △상품전략팀장 홍원일 △주식영역1팀장 조성원 △채권상품팀장 임원영 △투자컨설팅팀장 강신창 △해외주식서비스팀장 임병조 △지점장 전보 △신촌지점장 류은식 △포항지점장 성환오
 - ◆DB금융투자 ◇ 보임 △법인영역본부장 이동규 △기관금융팀장 오진철 △전보 △해외대체상품팀장 이용수
 - ◆티맥스 ◇ 승진 △티맥스소프트 글로벌사업부
- 사장 윤형봉 △티맥스소프트 오에스사업본부/파트너사업본부 전무 유용진 △티맥스소프트 재무기획 실장 김승규 △티맥스소프트 소프트웨어본부 상무보 설희수 △티맥스데이터 공공사업본부 공공사업부 상무보 정은택 △티맥스오에스 OS기술본부 상무보 서정완 △티맥스오에스 금융사업본부 금융연구부 상무 이용재 △티맥스클라우드 클라우드사업본부 PDC/Enterprise사업부 상무보 채수환 △티맥스클라우드 전략사업본부 전략3사업부 상무보 구태완 ◇ 신규 위촉 △티맥스클라우드 클라우드사업본부 전무 김병조
-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김정기 △운영지원과장 남동일
- ◆JW그룹 ◇ JW홀딩스 △ 상무 송승민 이송철 △이사대우 노도윤 ◇ JW중외제약 △ 부사장 이상열 △ 수석상무 구자역 이용수 △ 상무 호필수 황현준 △ 이사대우 이상일 이준구 정성기 ◇ JW생명과학 △ 수석상무 노정열
- ◆ABL생명 ◇ 전보 △FC기획부장 정도영 △FC관리부장 박홍

부음

▲ 윤석인씨 별세, 여준(춘천시 동명장)씨 부친상, 이기춘(강릉 우성레미콘 대표)씨 장인상 = 3일 오전 8시 20분, 춘천 강원효장례문화원,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33-261-4441, 010-3015-9560

치즈에 빠진 식품업계... 죽·라면·만두에도 ‘치~즈’

메뉴 다양화로 입맛 사로잡아

1인당 소비량 연평균 10%씩 늘어 시장규모 커져... 소비자 집중 공략

식품업계가 치즈 열풍이 불고 있다. 식탁에서 치즈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치즈 시장 규모는 총 356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 3113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14.6%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치즈 소비량은 연평균 10%씩 증가하며 2013년 2만2000t에서 지난해에는 3만5000t으로 생산량이 57.3%나 급증했다.

국내 치즈



왼쪽부터 로스트 머쉬룸 불고기죽, 삼양라면 치즈, 고향만두 치즈갈비교자. /본아이에프·삼양식품·해태제과

소비량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식품업계는 치즈에 집중하거나 기존 제품과 결합하는 등 다양한 치즈 제품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죽부터 치킨, 라면 등 다양하다.

본아이에프가 운영하는 한식 캐주얼 다이닝 ‘본죽&비빔밥 카페’는 자연산 모짜렐라 치즈를 뿌린 ‘로스트 머쉬룸 불고기죽’을 선보였다. 죽에 프리미엄 토피ング을 얹은 별미 요리죽 라인 ‘본죽 시그니처’의 첫 번째 메뉴로, 불맛을 살린 고소한 직화 불고기와 쫄깃한 식감의 양송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이 부

드럽고 고소한 모짜렐라 치즈와 조화를 이루는 메뉴다. 이외에도 본죽&비빔밥 카페는 ‘치즈토피ング’ 메뉴를 별도로 마련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원하는 죽 메뉴에 치즈 토피ング을 추가하면 고소함과 부드러움을 더한 이색적인 죽을 즐길 수 있다.

치즈 옷을 입은 치킨도 등장했다. KFC는 진한 치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풀인 치즈 치킨’을 한정 판매한다. KFC의 대표 메뉴인 핫크리스피 치킨에 고다, 에멘탈 치즈가 어우러진 진한 치즈 소스를 더한 제품으로 입안에 풍성하게 감도는

치즈의 풍미와 바삭한 치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제품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뉴 설명으로 SNS 상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겨울 대표 간식으로 꼽히는 호빵에도 치즈가 담겼다. SPC삼립은 겨울을 맞아 ‘삼립호빵’ 12종을 출시하며 ‘치즈불닭호빵’을 선보였다. 핫소스를 버무린 닭고기에 부드러운 모짜렐라 치즈가 조화로운 제품으로, 식사나 안주 대용으로도 즐길 수 있다. 호빵 성수기인 12월을 겨냥,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이며 고객 입맛 사로잡기에 나섰다.

치즈가 메인인 라면도 있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출시 55주년을 맞이해 삼양라면의 두 번째 확장제품인 ‘삼양라면 치즈’를 출시했다. 1963년 탄생한 국내 최초의 라면 삼양라면은 현재까지 110억 개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제품이다. 삼양식품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반영해 2017년 매운맛을 선보인 데 이어 올해 치즈맛을 적용한 ‘삼양라면 치즈’

’로 젊은 세대 공략에 나섰다. 삼양라면 치즈는 삼양라면 특유의 햄맛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모짜렐라, 체다, 까망베르, 고다치즈 등 네 종류의 치즈를 넣어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치즈라면을 절묘하게 구현했다. 후첨 분말스프에는 치즈가 27.6% 함유되어 있어 고소하면서도 풍부한 치즈맛을 느낄 수 있다.

해태제과는 신제품 ‘고향만두 치즈갈비교자’를 출시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치즈갈비의 맛을 구현하고 있다. 갈비의 진한 맛과 모짜렐라 치즈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루며 조리 방식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내도록 했다. 군만두로 먹으면 육즙이 농축된 매콤한 갈비 맛이 진하고 찜만두는 고소한 치즈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치즈는 피자 토피ング과 같이 기본 역할에 충실할 뿐 아니라, 기존 제품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맛은 물론 먹는 재미까지 더하고 있다”며 “업계에 불고 있는 ‘치즈 바람’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안산점 본관(왼쪽)과 신관.

롯데백화점 안산점, 8년 만에 리뉴얼

패션 중심 본관·라이프스타일형 신관 우수 브랜드 대거 유치 등 혁신적 변화 과감한 총별 배치로 기존 관념 깨

롯데백화점 안산점이 새롭게 태어난다. 안산점은 2년 5개월의 매장 개편(MD)을 마치고 지역 상권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백화점으로 오는 7일 리뉴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신관은 지역 맞춤 라이프스타일 컨셉으로 고객을 위한 열린 공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본관은 쇼핑 중심의 패션관으로 화장품, 스포츠 등 우수한 브랜드를 대거 유치하는 등 다양한 혁신적 변화를 꾀했다.

특히 안산점 신관 증축은 과거 주차장 및 호텔로 이용되던 부지에 6개층(B1F~5F), 영업면적 8900㎡ (2700평) 규모로 설립했다. 신관은 라이프스타일관으로, 본관은 패션관으로 복합 단지 구성을 통해 기존 안산 고객 및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약 3만여 가구의 수요를 끌어들이길 계획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에 도전

일반적으로 백화점 1층은 평당 매출이 높은 화장품, 2층부터는 의류 상품군 배치를 하는 것이 기본 공식이나 안산점 신관의 경우 고객 중심으로 상품군 배치를 바꿨다. 1층은 라이프스타일 컨셉으로 ‘무인양품’을 유치했으며, 2층은 30~40대 키즈맘이 많은 안산 상권 특성에 맞춰 일반적으로 백화점 고층부에 있던 아동/유아 매장을 과감히 배치했다. 또한, 2층에는 아이들을 위해 330㎡ (100평) 규모의 뽀로로 키즈 카페를 유치하는 등 고객

의 입장에서 백화점을 구성했다. 3층은 ‘홈 & 데일리 스타일관’으로 리빙 브랜드와 의류 브랜드를 한 층에서 동시에 선보인다.

◆안산의 랜드마크 되나

롯데백화점은 안산점 신관 총 6개층 중 2개층을 상품판매 매장이 아닌 고객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안산시는 경기도청 주관 ‘도시정원 만들기’ 시범 지역이다. 이에 안산점은 선도적으로 고객을 위한 가드닝 복합 문화공간 옥상공원인 ‘소공원’을 5층에 조성했다. 옥상 공원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키즈가든’과 도심 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메인가든’이 있다. 또한 5층에는 자연 채광이 풍부한 ‘온실 카페’와 ‘문화센터’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가드닝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하 1층은 고객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존에 없던 스트리트 골목 컨셉을 백화점 내부에 구현하고, 지역 맛집 등 다양한 F&B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 만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점은 취약했던 식음료(F&B) 상품군에 변화를 주 신관 지하 1층에 1300㎡(390평) 규모로 가성비 높은 지역 맛집과 인기 식음료 브랜드를 유치했다.

◆유명 컨텐츠 도입해 고객 편의성 확대

신관 1층에는 상권 최초로 무인양품을 1090㎡(330평) 규모로 유치했고, 3층에는 ‘피그먼트’, ‘인더슈’, ‘르피타’ 등 스트리트 패션 우수 브랜드 유치를 했다. 4층에는 백화점 최초 프리미엄 컨셉의 ‘하이마트 프리미엄’을 개발해 1653㎡(500평) 규모로 도입했다. /신원선 기자

‘종이는 가라’ 신세계백, 전자가격표 도입

중앙 서버서 상품정보 변경하면 매장내 전자 가격표에 자동 반영 수작업 교체비 업무효율성 증가

백화점에서 종이 가격표가 사라진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12월부터 지하 푸드마켓에 전자가격표시(ESL·전자 가격표)를 본격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본점을 시작으로 내년 점포별로 확대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디지털’과 ‘친환경’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자 가격표 도입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종이 가격표의 경우 용지, 코팅 등 소모품이 많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불필요한 인쇄 작업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예정이다.

전자 가격표는 과거 종이에 표시했던 상품의 가격 등을 전자종이와 같은 디지털 장치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중앙 서버에서 상품정보를 변경하면 무선 통신을 통해 매장 내 전자 가격표에 자동 반영된다. 가격이 바뀔 때마다 매장에서 종이 가격표를 출력해 수작업으로 교체하던 방식과 비교하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주 35시간 근무 제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푸드마켓 전자 가격표.

를 시작한 신세계백화점은 그 동안 업무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게다가 7월부터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면서 매장 관리자들의 작업 또한 간소화하기 위해 시스템도 개발했다.

신세계는 이번 전자가격표 도입으로 비효율적인 작업 구조를 개선해 업무시간도 혁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 매주 평균 3000여 개의 종이 가격표를 교체했는데 평균 22.1시간이 걸렸다. 매번 컴퓨터로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인쇄, 코팅까지 하면서 불필요한 업무 시간이 가중됐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종 실수도 발생했다.

정렬되지 않은 디스플레이나 인쇄 상황에 따른 컬러 차이도 고객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 정보 때문에 소비자 불만도 있었다.

이번 전자 가격표는 판매가뿐만 아니

라 재고, 상품 상세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까지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실제 지난 3월 전자 가격표를 시범 도입한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 전자 가격표 도입 이후 단순 반복업무가 대폭 사라지면서 종이 쇼카드 교체와 관련된 업무량이 90% 이상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표 교체와 관련한 단순 반복업무가 기존 대비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면서 남은 시간에 고객 응대를 비롯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신세계백화점은 유통과 IT를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스마트대기 서비스’를 도입해 줄을 서지 않아도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식당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름만 올려놓으면 모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기다리는 동안 쇼핑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국순당 막걸리, 베트남 공략 적극 나서

국순당이 동남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베트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순당은 11월 초부터 베트남 주요 대형마트에서 ‘스즈킵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순당 측은 ‘스즈킵 대회’가 현지에서 동남아 월드컵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고, 베트남의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의 국고인 한국 막걸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국순당은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국순당 막걸리 병 뚜껑에 축구공 디자인을 점목 시켜 막걸리와 축구 붐을 연계시켰다. 또한 현지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 막걸리 시음행사와 함께 ‘국순당 막걸리 축구 게임 세트’를 제작해 배포한다. 여기에는 축구공 디자인의 막걸리 병뚜껑과 축구게임용 테이블매트가 들어 있어 간편하게 손가락 축구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순당은 베트남 현지 페이스북에 베트남 국가대표팀의 매 경기 스



베트남 막걸리 판촉행사. /국순당

코어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축구공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시밀러

피하주사 ‘램시마SC’로 유럽 공략



빠르면 2019년 하반기 허가 예상
환자 편의성·의료접근성 등 높아

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피하주사 제형이 유럽 시장을 공략한다.

셀트리온은 ‘램시마’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만든 ‘램시마SC’의 허가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EMA의 허가 서류 심사 기간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며 빠르면 2019년 하반기 허가가 예상된다.

램시마 SC는 지난 20여 년 간 정맥주사(IV) 제형으로만 환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인플릭시맙 제품이 일반 주사형태인 피하주사 제형으로 거듭난 최초 사례다.

셀트리온은 TNF- α 억제제(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램시마와 투트랙(Two Track) 시장 전략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했다. 셀트리온 측은

르면, 최근 12개국, 362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한 결과, 램시마 SC 제형이 기존 IV 제형 램시마와 동등한 효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지난 10월 유럽과 미국에서 개최된 주요 의료학회[1]에서도 램시마 SC를 투여한 군의 체내 약물 농도가 램시마 IV를 투여한 군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양군의 데이터는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자가주사가 가능한 램시마SC의 장점을 내세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램시마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맥 투여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하지만 램시마SC는 환자가 집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사용주기에 맞춰 자가 투여하면 되므로 환자 편의성 및 시간 절감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기존 TNF- α 억제제(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 1, 2위인 휴미라와 엔브렐은 모두 SC제형으로, 지난해 각기 184억 달러(20조 7000억 원), 76억 달러(8조 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

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를 ‘바이오시밀러 이노베이션’으로 평가했다.

셀트리온 이상준 수석부사장은 ‘램시마 SC 제형은 바이오시밀러의 진화된 버전으로 오리지널사도 시도하지 못한 의미있는 도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존 IV만 존재하던 인플릭시맙 바이오시밀러가 제형 변경이나 성능 개선을 통해 SC제형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점은 환자의 편의성과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램시마 SC가 출시될 경우 휴미라가 독점해왔던 시장에 유일한 대안으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유럽 시장에서 이미 54%의 점유율을 기록한 정맥주사 형태의 램시마와 함께 제품 다변화 전략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램시마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제형 개발에 성공한 셀트리온의 연구개발(R&D)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베이스킨라빈스 “크리스마스엔 오버액션토끼와 함께~” 베이스킨라빈스가 3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출시한 ‘시크릿 회전목마’, ‘시크릿 3단 트리’, ‘시크릿 팝업북’, ‘시크릿 오버액션토끼’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케이크 26종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랜드월드 란제리 ‘에블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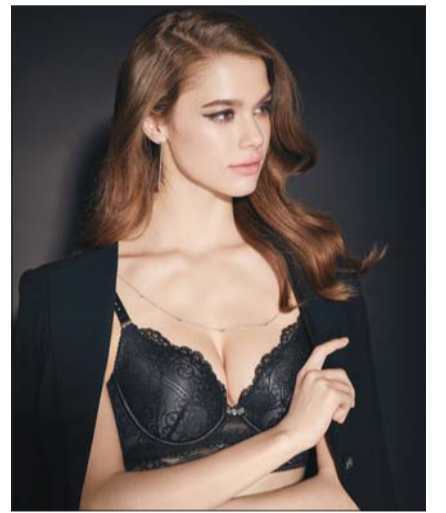
스와로브스키 입은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이랜드월드의 란제리 브랜드 에블린이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을 사용한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디자이너 컬렉션 ‘블랙스완’과 프레스티지 제품에 주얼리를 입힌 ‘블랙 크리스탈’, ‘루비 크리스탈’ 라인을 더해 총 3가지로 출시됐다. 3가지 라인 제품 모두 상품 전체에 큐빅 아닌 크리스탈을 사용해 영롱하고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특징이다.

블랙스완 라인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란제리에 목걸이와 초커를 결합해 함께 연출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브라에는 데일리 스타 목걸이가, 슬립에는 롱 목걸이, 테디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혀있는 리본 초커가 매칭됐다. 각 액세서리들은 데일리로 착용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하게 디자인됐다.

블랙스완 라인은 한정판으로 일부 매장 온라인몰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주문 구매만 할 수 있다. 블랙스완 라인을 1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6만원 상당의 세트 귀걸이와



에블린 블랙스완 컬렉션. /이랜드월드

최고급 패키지가 함께 제공된다. 블랙스완 브라와 테디는 각각 10만 9000원, 팬티 3만 9000원~4만 5000원, 가운 12만 9000원이다. 루비 크리스탈 라인 과 블랙 크리스탈 라인 제품에는 각각 레드, 블랙 크리스탈이 장식돼 있으며, 브라는 5만 9000원, 팬티는 2만원~2만 9000원, 슬립은 8만 9000원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고혈압·당뇨 증가... 국민건강지수 ‘낙제점’

서울대 국민건강보고서

2009년 비 2016년 하락률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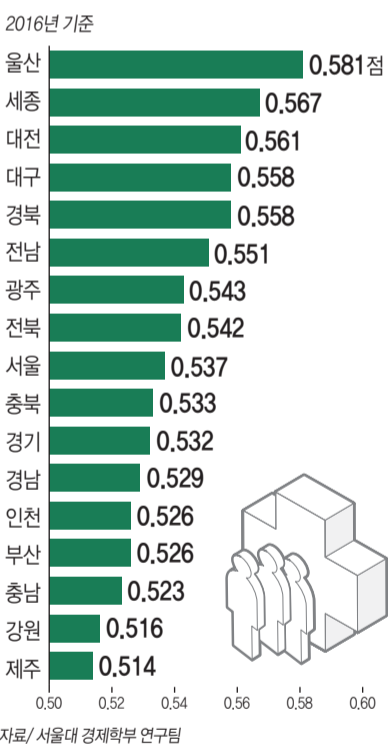
광역단체별 ‘울산’세종’대전’順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민건강지수’가 전체 1점 만점에 0.5점으로 낙제점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6년의 국민건강지수는 하락률이 5.8%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건강 수준이 나빠지는 추세를 보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지수 분석 보고서를 최근 열린 한국건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지수는 2009년 0.57점에서 2016년에는 0.54점으로 7년 사이 5.8% 하락했다.

국민건강지수는 서울대 경제학부 연구팀(홍석철, 윤양근, 유지수)이 현재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삶의 질 학회 등에서 각기 집계하고 있는 국민건강 지표들을 통합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개념이다. 기존 지표들이 국민건강의 단면만을 측정했다면, 이번 국민

광역시도별 국민건강지수 비교



건강지수는 이 분야 전문가 15명과 함께 지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10개 영역, 2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게 특징이다.

10개 영역별로는 질병이환 및 사고, 건강행태,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인구변화 등의 부문에서 건강 수준이 지

속해서 악화한 것으로 관측됐다.

또 29개 지표 가운데는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음주·흡연 등 건강행태의 악화, 인구 고령화 등의 부문에서 전반적인 건강 수준 하락 추이가 뚜렷했다.

국민건강지수는 광역단체별로 차이가 컸다.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건강지수가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울산(0.581)이었으며 이어 세종(0.567), 대전(0.561)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국민건강지수가 가장 낮은 광역단체로는 강원(0.516)이 꼽혔으며, 충남(0.52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별로는 전남 고흥군(0.617)의 국민건강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위 2~4위는 경북 경산시(0.615), 울산 동구(0.612), 대전 유성구(0.608)가 차지했다. 국민건강지수 순위로 전국 꼴찌는 강원 평창군(0.459)이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0.463), 경기 동두천시(0.469), 전남 목포시(0.469) 등도 최하위권에 랭크됐다.

연구를 주도한 홍석철 교수는 “향후 국민건강지수와 정부·지자체의 보건 의료 지출 및 보건 의료 요인 변수를 결합시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준희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림프부종학회서 우수 연제상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이준희 전공의가 최근 개최된 2018년 대한림프부종학회 8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림프부종센터장)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림프부종을 진단받은 환자들

을 대상으로 림프혈관문합술을 시행한 후의 상태를 초음파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수술 후 시간경과에 따라 표피, 피하지방층의 두께에 호전 추세를 보인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보존적 치료에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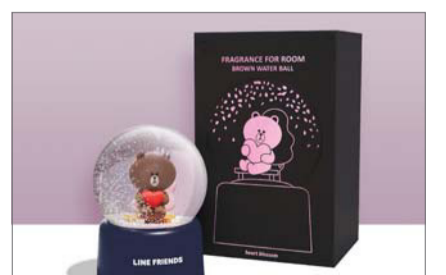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애경에스티 ‘홈즈 에어후레쉬 워터볼 방향제’ 출시

애경에스티에서 겨울 및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글로벌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와 협업으로 ‘홈즈 에어후레쉬 라인프렌즈 워터볼 방향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홈즈 에어후레쉬 라인프렌즈 워터볼 방향제는 라인프렌즈의 매력적인 캐릭터인 브라운이 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스노우볼 형태의 방향제다.

홈즈 에어후레쉬 라인프렌즈 워터볼 방향제는 최근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실내 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관심이 높



홈즈 에어후레쉬 라인프렌즈 워터볼방향제. /애경에스티

아진 추세에 따라 인기 인테리어 소품인 워터볼에 방향제를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김민서 기자

한화큐셀, 소비자대상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선정

소비자협회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글로벌 지향 경영 공로 인정받아

한화큐셀은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이번호 신설된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소비자 권의 증진과 글로벌 지향 경영의 공로를 평가해 수여하는 시상식이다. 한화큐셀은 높은 기술력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제품의 성능과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는 전매특허 퀵텀(Q.ANTUM)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사들과 기술 격차를 벌리며 세계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 품질 기준의 2~3배가 넘는 흑독한 품질 테



한화큐셀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선정하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에서 '글로벌 베스트 컴퍼니' 부문을 수상했다. /한화큐셀

스트로 제품 신뢰성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화측은 설명했다.

또 대리점 프로그램인 큐파트너(Q.PARTNER)를 운영해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소형 태양광 모듈, 주택용 토털 솔루션과 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형 제품을 출시해 각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한화큐셀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객 니즈에 맞는 제품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시장다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수출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대표 수출산업으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진행된 '2018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조현수 전 한화큐셀코리아대표이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한바를 인정받아 수상자 중 가장 높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조현수 전 대표이사는 서울시와 함께 태양광 창업스쿨을 추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태양광 대여사업과 같이 일반인이 태양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태양광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태양광 시장 저변을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메리 대구, 잘 살고 있나요



기지수첩

이범종
(정책사회부)

'청년 백수가 꿈 따윈 좇아도 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대답한 드러마가 있다. 2007년작 '메리 대구 공방전'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황메리와 무명 무협소설가 강대구의 연애 이야기다. 서른 살 메리와 스물아홉 대구는 매일 주저앉고 싶은 자신과 싸우며 동네 약수터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은 대기업을 방불케 하는 동네 슈퍼 아르바이트 공제, 데뷔 무대인 줄 알았던 건강식품판매 공연 앞에서 눈물에 젖었다가 단단히 굳어간다.

작품은 뮤지컬 '다이아몬드'에서 지나가는 차타 역할을 맡은 메리가 스태프의 부름에 "네"라고 대답하며 끝난다. 대구의 작품 '풍운도사와 백팔번뇌'는 뒤늦게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선택과 후회뿐인 인생에서 남들의 시선은 무시할 수 없다. 조만간 SNS에 게시될 새해 다짐부터 직장과 연봉에 이르는 척도들이 그렇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6 한국 직업정보'에 따르면, 황메리의 직업인 '연극 및 뮤지컬 배우'의

수입은 평균소득이 5번째로 낮다. 평균대라면 그는 1년에 1481만원을 번다. 소설가인 대구는 1544만원을 벌며 9위다. 두 사람이 번 돈을 합쳐야 1년에 3000만원을 겨우 넘는다. 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빈곤한 연말을 맞은 셈이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불행할까. 나는 요즘 꿈과 이상을 현실과 흥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연말 기획 인터뷰 '희망 2019'의 첫 주자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은 언론사 편집국장 자리를 박차고 제주도 해안가를 올레길로 이었다. 변호사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1년 넘게 수감됐던 백종건 변호사는 4주짜리 훈련에 '아니오'를 외쳤다. 2박 3일짜리 관광지였던 제주도는 이제 걷기 여행의 중심지가 됐다. 올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마련의 길이 열렸다.

세상을 뒤흔든 적도, 대단하지도 않은 메리 대구는 이제 40대가 되었다. 아직 11년 전의 "네"를 기억한다면, 두 사람은 내년에라도 글을 쓰고 무대에 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우리 중의 누군가, 언젠가 그것을 해낼 당신처럼.

/joker@metroseoul.co.kr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인성교육 포럼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 인성교육 포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현직 교사, 대학(원)생 등 예비교사, 교육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재단이 정한 포럼의 키워드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이다. 정보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인류차원의 다양한 문제가 증가하면서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 수준의 상호 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재단은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공

동체적 태도를 지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빈곤, 환경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으로는 김영길 유엔아카데미팩트(UNAI) 한국협의회 회장이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성교육 :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이인재 서울고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너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인성교육의 원리와 실천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오늘의 운세

12월 4일 (음 10월 27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60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72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84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고 나가자.



49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1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73년생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않도록. 85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50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2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74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86년생 망설이다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



51년생 옳다고 느끼는 일이라도 침묵이 답이다. 63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라. 75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87년생 머리를 만지고 있다는 일을 그려준다.



5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64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6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88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53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도 자중. 65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77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는 것이. 89년생 날개 뺏기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54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무시하 말성. 66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8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9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치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55년생 여항 속 물고기처럼 좁은 공간을 빙빙 도는 하루. 67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79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91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5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68년생 위병이나 탈이 나기 쉬우니 식탐은 저 멀리에. 80년생 남쪽으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92년생 미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린다.



57년생 우물거에서 송눈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69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81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93년생 꿈을 얻으려면 별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58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당신의 격을 높여준다. 70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82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탓이다. 94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다.



59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련하다. 71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살 수 있다. 83년생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주의. 95년생 하늘이 높고 푸르니 마음이 상쾌하고 희망이 보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2	6		3	4		8
						3	
	6		9				
4	6	8		2			
7	3		1	9			
8		5	6		3		
	8		3			7	
2		4	9		1	5	6

		7		8			2	
	5							8
6		8	2		3	4		5
			1	4		2	9	
3								4
9		5		7		6		2
		3					7	
7			9	5	8			1
	1							6

스도쿠 정답

9	8	5	1	2	6	7	4	3
4	2	1	9	7	8	3	5	6
7	6	3	2	5	1	8	9	4
6	7	4	9	2	5	1	8	3
5	9	8	6	1	7	4	3	2
2	1	2	5	8	9	6	7	4
2	5	7	6	1	8	9	4	3
1	9	8	2	4	6	7	5	3
8	6	7	4	5	9	2	1	3

문제 제공= 보스



김상회의四季

풍수 명당은 운세도 바뀌

전원주택 지을 집터를 알아보러 다니던 부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부부는 수도권지역 이곳저곳을 일년 넘게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교외지역을 지나가다 스치듯 한 곳을 보았는데 가슴속으로 쑥 들어왔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왔는데 눈에 삼삼하고 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다. 잊히지 않아 다시 가봤더니 마음에 꼭 차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 싶어 바로 터 잡기를 결정을 하고 지금껏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생활도 여유 있고 그런 영향인지 만사가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기뻐한다. 이렇게 마음에 딱 들어오는 집터나 꿈에 나타나는 집터를 만나는 사람이 종종 있다. 이런 집터는 자기에게 잘 맞는 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에게 명당인 것이다. 풍수에서는 자기와 잘 맞는 집터 즉 명당에 거주하면 운세도 바뀐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도 운세가 좋아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위에 예로 든 부부는 강남에서 친구와 의료기 사업을 하다 독립을 했다. 독립할 즈음에 이사 가며 지은 집이 바로 그 집이다. 마음에 딱 드는 집에 살며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독립한 뒤로는 어려움도 없이 사업이 탄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집터가 좋아서 그렇다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도 집터에 고마워하면서 산다.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마흔 중반의 차장도 그런 경우이다. 일은 잘하는데 몇 번이나 협력사 때문에 프로젝트에 오류가 생기곤 했다. 그런 탓에 승진에 번번이 밀려나야 했다. 집터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지금 2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을 해도 오류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일도 잘하고 오류도 없으니 이제는 승진 1순위에 올랐다고 한다. 집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몰랐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다. 명당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명당인 것이 아니다. 명당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살고 있노라면 나를 감싸는 듯해서 항상 안온하다. 명당에 터를 잡으면 운세가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7호

청소년 오케스트라·말박물관... 농촌 문화 위해 렛츠런!

마사회, 농어촌 문화나눔 공로 '우수기관' 인증

소외계층에 문화참여 기회 제공
 100억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구조적문제 해결로 질적 도약을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한국마사회가 농어촌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며, 매년 문화예술 후원을 많이 한 단체와 기업 등을 심사한다.

현재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4개,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29개 등 총 33개 단체와 기업이 인증 받았다.

올해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렉스나인(주), ㈜세아홀딩스, ㈜파라디이스, ㈜하나투어까지 5개 기업이 새로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0일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린 '2018 예술이 빛나는 밤에'서 인증식

이 진행됐으며 각 기관에게 인증패가 전달됐다.

마사회는 2014년 렛츠런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농어촌 희망재단 '마을 공동체 문화 지원 사업', '말박물관 운영', '사회공헌 페스티벌' 등이 있다.

특히,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국형 '엘 시스템'로 불리며, 지휘자 급



지난 5월 러시아 사할린서 열린 '한-러 청소년 합동 연주회'에 참가한 마사회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습. /마사회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기부달리기 '국민드림런'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난새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엘 시스템이란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로 음악교육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1년부터 전국 16개 총 900여 명의 농어촌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2017년에는 러시아 사할린 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 연주회 및 음악캠프를 진행했다.

한국의 마문화를 소개하는 '말박물관'

도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다.

1988년에 개관해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말 박물관은 말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소장 및 전시하고 있으며, 무료 대관 기회를 제공해 70명 이상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한국마사회는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는 기업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도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마사회를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사회는 2014년 3월 렛츠런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연간 약 1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실업과 청소년 문제, 사회 양극화, 도농 격차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사회공헌 사업의 질적인 도약을 꾀하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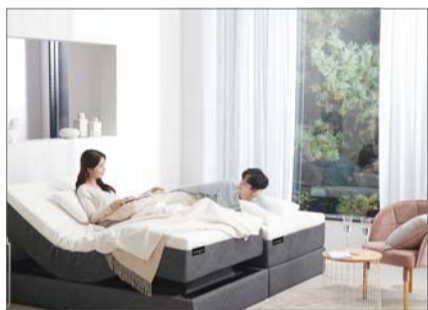
웅진렌탈 일체형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출시

웅진그룹의 웅진렌탈은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용자의 수면 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웅진렌탈이 선보인 경도 조절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에 이은 두 번째 슬립 컨트롤 시리즈다.

이번 신제품은 매트리스와 모션 무브먼트가 하나로 이뤄진 일체형 모델이다. 모션베드 전용 프레임으로 매트리스 굴곡을 만들어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매트리스 자체에 모션 기능을 갖춰 사용자 몸에 밀착한 듯 보다 편안한 움직임을 제공한다.

매트리스의 쿠션감을 더해주는 슬립 컨트롤 모션베드 전용 토퍼는 7cm 두께로 고밀도 메모리폼과 천연 라텍스를 양면에 적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용했다. 부드러운 쿠션감을 원할 경우 메모리폼 면을, 보다 쾌적한 수면을 원할 경우 통기성이 뛰어난 라텍스 면을 각각 위쪽으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몸과 맞는 매트리스 상단 커버는 피부 자극이 적은 친환경 텐셀 소재를 사용했다. 탈착 가능한 분리형으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세탁할 수 있고, 방수레이어가 적용되어 음식물, 진드기 등으로 인한 매트리스 오염도 방지한다.

신제품은 가로 110cm, 세로 200cm 슈퍼싱글(SS) 사이즈로 출시됐으며, 기존 침대 프레임이나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매트리스만 사용 시 309만원, 슬립컨트롤 모션매트리스 전용 프레임과 묶음 주문 시 35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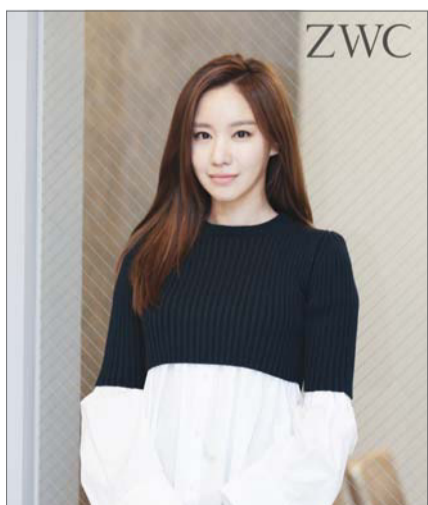
뷰티분야 진출 자이글

김아중 새 모델로 계약

자이글이 화장품 등 뷰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 자이글은 웰빙뷰티 사업부문을 진출을 위해 배우 김아중(사진)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웰빙뷰티 사업은 자이글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사업으로 올 연말 'ZWC'라는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고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이글은 밤새, 연기, 기름 땀이 없는 에코 제품 '자이글 그릴'을 중심으로 한 웰빙키친 사업에 이어 ZWC 런칭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웰빙뷰티, 웰빙라이프 사업의 매출을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웰빙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자이글은 ZWC 런칭에 앞서 연말 출시 예정인 산소케어 ZWC 오투마스크와 오투 기초화장품의 모델로 배우 김아중과 계약을 맺고 본격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김승호 기자

인천공항 '밀리니엄홀'에 27m '미디어타워'

LED전광판에 8K 고화질 영상 구현 세계시간·날씨예보 등 콘텐츠 표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앙의 밀레니엄홀에 새로 들어선 초대형 미디어타워를 정식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 미디어타워는 가로 10미터, 폭 3.5미터, 높이 27미터로 이뤄졌다.

외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LED전광판은 8K(4864×6656 픽셀)의 고해상도 영상 구현이 가능하며, 크기와 해상도 모두 국내 실내 LED전광판 중 최고 수준이다.

엘리베이터 탑승 공간인 미디어타워의 내측에도 영상 송출을 위한 대형 미디어월 2개(각각 55인치 모니터 51대로 구성)가 설치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미디어타워의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세계시간 및 날씨예보와 같은 여행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표출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운영 개시와 함께 독일의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로만 드 기우

리의 '뷰티풀 월드(Beautiful World)'와 인천공항 명예 홍보견 '달리'의 세계 여행 이야기를 다룬 '레츠고 달리(Let's Go Dearly)' 두 작품이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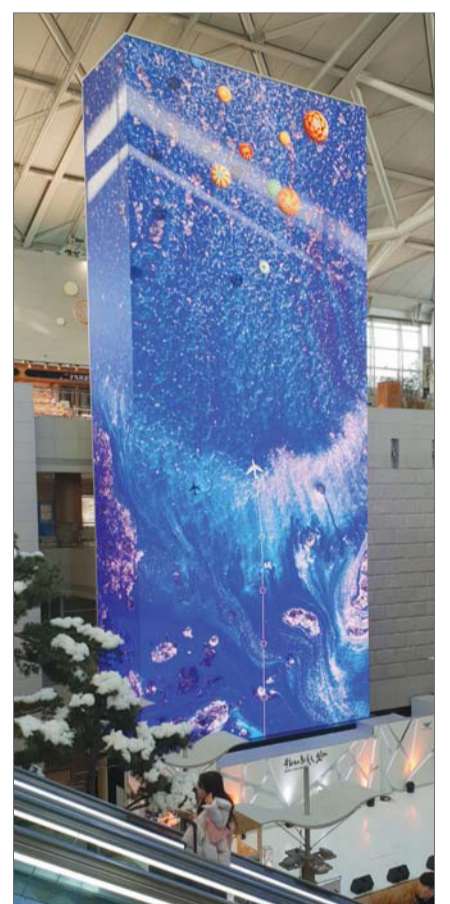
이달 중 2종의 작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주요 도시의 현재시각 및 날씨예보를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지 시간대와 날씨상황에 맞춰 배경그림이 변하는 기술이 도입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미디어타워가 스마트 공항, 예술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을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일영 사장은 "이번에 새로 선보이게 된 미디어타워는 여객 분들께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T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이용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미디어타워.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

근로복지공단, 시상식·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3일 서울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는 제10회 '2018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THE-자람 보육공모전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국 직장어린이집 총 2960건의 출품작 중 328건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공모전은 UCC분야를 신설해 직장보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설치 사업장 및 이용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대상을 확대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보육프로그램, 스토리텔링&사진, 공간 환경디자인, UCC 총 4개 분야로 나눠 공모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40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은 ㈜이랜드월드의 '이랜드코코몽어린이집', 스토리텔

링&사진은 서울보증보험증권의 'SGI서울보증어린이집', 공간 환경디자인은 ㈜녹십자홀딩스의 'GC Childcare Center 어린이집', UCC는 대우조선해양(주) 옥포조선소의 '행복어린이집'이 각각 선정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공모전은 직장보육 발전에 걸인차 역할을 하며 직장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공모전으로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며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중소·벤처기업 살리는 건 누가 잘 하나?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중소·벤처기업**,
신성장 유망기업 등에 **15조원**을 지원,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금융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가 힘이다.
하나가 힘이다.

하나금융지주 · KEB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금융티아이



찾동 시행 3년... 동 단위 → 골목 단위 '위기가정 발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박원순 시장, 민선7기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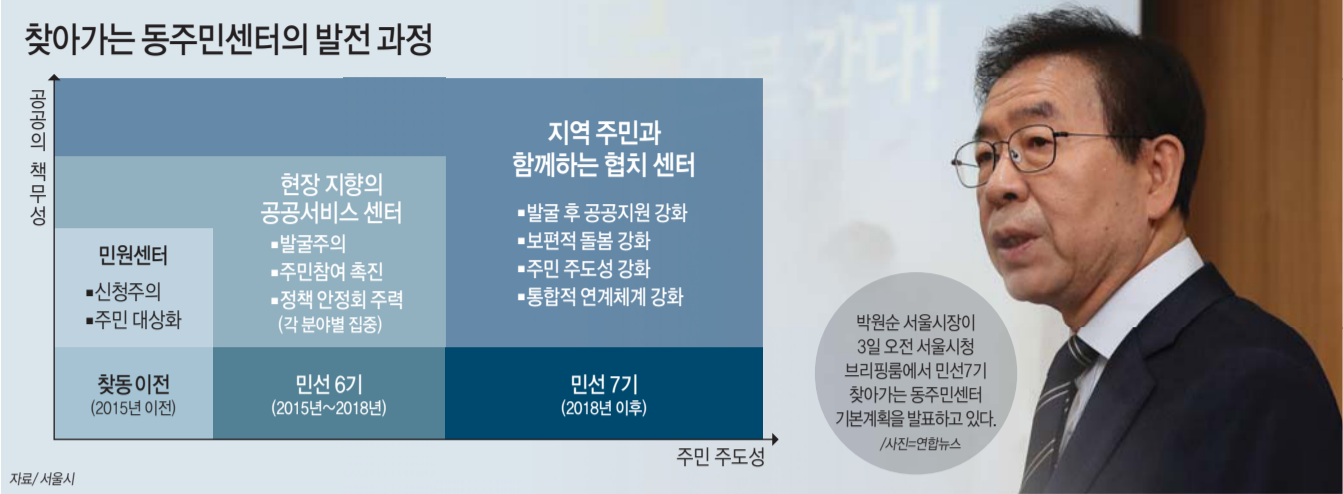
'찾동 시즌2' 시민 긴급복지 강화 2022년까지 인력 907명 총원

그동안 동 단위로 이뤄졌던 서울시의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골목 단위 협치센터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7월 시작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이 직접 어르신 가정, 빈곤 위기 가정 등 복지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시청에서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행정은 찾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복지 사각지대를 지워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찾동 서비스 시행 이후 고독사·자살사망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사회지표 개선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연고사망자 수는 2015년 536명에서 2016년 571명으로 약 6.5%(35명) 증가했다. 무연고사망



자 수가 찾동이 시작된 2015년 7월 이후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2017년에는 51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 6월 기준 3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하반기에 상반기와 같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서울 시내 무연고사망자 수는 612명으로 추정된다. 전년과 비교해 약 100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태수 찾동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찾동이 시행 첫해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며 "찾동은 2015년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해 올해 5월 강남구 19개 동을 제외한 서울시 전제로 확대됐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지표가 동별, 구별로 나오지 않는다"며 "시행 후

적어도 3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일까. 2015년부터 찾동 서비스를 시작한 자치구는 성동·금천·성북·도봉구다. '서울시 자살률 자치구별 통계'를 보면, 도봉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91명에서, 2016년 75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 98명으로 증가했다. 찾동 시행 전과 비교해 7명 증가한 셈이다. 금천구의 자살자 수는 2015년 57명에서 2016·2017년 64명으로 찾동 도입 전보다 7명 늘었다.

이 위원장은 "찾동 시즌 2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다 보면 향후 사회지표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골목 단위로 확대된 찾동 시

즌 2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공공과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서울시민은 '골목 회의'를 요청해 주민들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다. 또 신청 72시간 이내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본계획'은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의 4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시는 주민 5명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는 골목 회의를 도입해 민관이 함께 마을 문

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도입하고, 주민세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실직·재해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등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고독사 위험 가구에 복지플래너, 가족, 이웃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매년 50억원씩 확대 지원한다. 돌봄SOS센터를 통해 72시간 내에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방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찾동의 모든 사업을 민·관 구분, 정책사업별 칸막이가 없는 '통합적 운영체계'로 추진한다. 유관사업 간 중복·누락을 막고, 복지수혜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찾동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인력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돌봄SOS센터 전담 인력을 포함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한다.

박 시장은 "찾동 인력은 행정 효율보다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찾동 2.0의 핵심은 보편돌봄과 민관협치다. 체감 있는 변화,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의 주인공은 시민이다"며 "가까운 곳에서 시민 일상을 파고드는 정교하고 강력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oeul.co.kr)

119구급대, 연평균 환자 32만명 이송

소방본부, 3년간 구급활동 현황

3년간 출동건수 총 158만건 하루평균 환자 869명 이송

최근 3년간 119구급대는 157만9975건 출동했으며, 이송환자 수는 95만22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일 2015~2017년 질병별(병력별) 구급활동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구급 출동 건수는 2015년 50만6546건에서 2016년 52만8247건, 2017년 54만518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송환자 수는 연평균 31만7400명, 일평균 869명으로 집계됐다.

구급활동 세부현황을 보면, 만성질환자 65만8539명, 교통사고 10만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 19만2110명이었다.

만성질환자 질병(병력)별 구급활동 순위는 고혈압이 20만3446명(3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뇨 12만0414명

(최근 3년간 12월 만성질환자 발생 추이)

구분	합계	간염	결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알러지	암	기타
17. 12.	22,154	67	56	7,839	4,532	2,064	61	1,659	5,876
16. 12.	19,972	58	66	6,175	3,662	1,700	60	1,376	6,875
15. 12.	18,758	60	59	5,823	3,365	1,600	55	1,282	6,514
누계	60,884	185	181	19,837	11,559	5,364	176	4,317	19,265

(자료=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8.3%), 심장질환 5만4697명(8.3%), 각종 암 4만8201명(7.3%), 결핵 2371명(0.36%), 간염 2430명(0.3%), 알러지 1941명(0.29%) 순이었다.

만성질환자는 12월에 60만884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이 58만729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가 만성질환자 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12월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신고가 많았으며, 이들 질환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심혈관계 만성질환자는 겨울철 급격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성이 뛰어난 기능성 옷과 모자 등

을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음주 후 찬바람에 노출되면 혈관수축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 부상 중 교통사고 부상자는 10만 1553명, 낙상 등 사고부상은 19만211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사고 부상 중 낙상사고는 14만619명이 발생했다. 이중 겨울철 빙판길 낙상사고로 139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심장질환자 구급활동 건수가 많은 만큼 해당 질환을 가진 시민분들은 겨울철 건물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에너지정책 평가체제 마련... 역량 제고해야

경기연구원, 에너지비전 2030 보고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에너지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를 마련해 에너지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3일 31개 시·군의 에너지정책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시·군별 평가를 통해 도와 시·군의 에너지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시·군 평가 모델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 70%달성, 에너지효율 20% 향상,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를 위한 시·군 에너지정책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시·군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모형은 '에너지정책성과 및 역량'과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 등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에너지정책성과 및 역량은 에너지효율(5개 지표), 에너지 생산(4개 지표), 제도적 기반(6개 지표)으로, 에너지자립 실천 노력은 사업추진 실적(4개 지표)과 역량강화(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모형을 적용한 시·군별 평가 결과, 에너지정책 종합점수는 안산시(가장 높았)고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성남시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민사회 역량이 높은 곳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신청서 제출

경기·강원도, 공동 추진

경기강원 지역을 흐르는 지질자원의 보고(寶庫)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 30일 유네스코 본부에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0차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을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 결정에 따라 도는 한탄강 지질공원의 조건 이행계획과 함께 세계 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환경부 측에 제출했



한탄강 국가지질공원내 아트밸리-천주호. /경기도

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거쳐 유네스코 본부로 전달됐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경기도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 중 하나로, 우수지질 자원을 보유한 경기지역 포천·연천과 강원지역 철원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이 대상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도, 상조업체 가입 '주의보'

자본금 요건 3억→15억 상향

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김승열 기자)

"땀글 달고 美 LA 가요" 서울시-LA시, 공동 이벤트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에 땀글을 달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이하 LA)시로 무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서울시와 LA시는 한국과 미국인들이 서로의 도시를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공동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17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관광 홈페이지에서 L.A.의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방문하고 싶은 장소와 그 이유, 직접 촬영한 서울의 사진을 첨부해 땀글로 응모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마켓] 임기만으로 앞둔 증권사 CEO 성적표 08



[공기업] 한국마사회 농어촌 문화나눔 공로 우수기관 인증 L4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의 사랑나눔 미래 영화인 키우고, 문화소외계층엔 객석 나누고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CJ CGV

CJ CGV는 1998년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인 CGV강변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 152개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1위 극장사업자다.

영화관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온 CGV는 영화라는 근원적 가치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시킨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로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그룹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CGV는 그간 극장사업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공익 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영화인' 꿈 키우

2008년 시작한 토토의 작업실은 청소년들이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배우며 제작자의 직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간 7천여명의 청소년에게 양질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영화 제작자라는 직업을 이해하고, 시나리오 작성부터 연기, 촬영, 편집 등을 통해 창의력과 표현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상영관, 매점, 영사실 등을 견학해보고, 극장 매니저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영화특강 '두근두근 영화학교'도 개설했다. '두근두근 영화학교'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직업을 살펴보고, 관련 직무 전문가의 직업 특강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1만 3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을 배워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교육부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체험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작은영화관 '역량 강화 워크숍'.

/CJ CGV

영화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청소년에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문화격차 해소 위해 객석나눔 행사 시·청각 장애인 위한 관람데이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서 영화 꿈나무 위한 다양한 지원

CJ CGV 전국 18개 극장이 우선 지역 특수학교와 연계해 매년 2회씩(상·하반기 각 1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세종, 강원 등 전국 각지 극장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전국 29개 CGV 극장에서 운영하고 있다.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

다음으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앞장서왔다.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한 객석나눔 행사가 대표적이다.

CJ CGV 객석나눔은 소외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사회 곳곳의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약 14만

8000명의 문화소외계층과 함께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활동을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전국 94개 직영 극장 전체가 각 지역 내 복지기관과 결연을 맺는, '1극장 1기관' 캠페인도 진행했다. 각 극장들이 지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기관들과 1년간 협약을 맺고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을 지속 전개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시·청각 장애인의 극장 내 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드'도 운영하고 있다. CJ CGV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드에는 2014년 약 3만 2000여 명, 2015년 3만8000여 명, 2016년 4만3000여 명 등 3년간 총 11만여 명이 관람했다. 2014년 첫 시행 이후 매년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 편수, 상영관 규모, 상영 횟수를 확대해 전국 30여개 CGV 극장에서 월 평균 60회차 정기 상영하고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했다. 2017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발달 장애 작가의 그림을 활용한 나눔패스카드를 제작해 판매금액 중 10%를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Heart for Eye' 캠페인에 참여해 나눔패스카드를 제작, 판매금액의 10%를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개인 수술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사회공헌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각각 2011년, 2012년, 2013년부터 토토의 작업실을 진행해 896명의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의 협력으로 '시나리오 공모전'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 공모전'은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베트남 청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 영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족자카르타에 '필름 커뮤니티 센터(Rumah Film Indonesia)'를 신설하기도 했다. 센터 운영과 함께 미래 영화인을 꿈꾸는 인니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영화 제작과 상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다.

CJ CGV는 국내외 청소년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영화에 대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기회의 장 선사 등 양질의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작은영화관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김선태 이사장.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



2018 시나리오 공모전 참가자들과 멘토.

/CJ CGV